

최 남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여대생의 결혼과 출산의식에 관한 연구

200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조 운 정

여대생의 결혼과 출산의식에 관한 연구

최 남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조 윤 정

인 준 서

조운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여대생의 결혼의식과 자녀출산의식, 저출산 현상과 출산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에 소재해있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미혼여대생을 조사 대상(328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값, 교차분석, 분산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평균적으로 20대 초반의 생활과학계열의 전공자이고, 대도시에서 성장하였으며, 부모님과 형제와 거주하는 가족형태를 띠고 있으며, 부모의 학력, 소득수준은 모두 중상이며, 형제는 1명인 경우가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가족관련 변인의 특성인 부모의 민주주의 성향, 부모의 부부 친밀도, 부모와 본인의 친밀도, 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모두 높았고,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의사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선택 시 고려사항은 경제력이 가장 우선했고, 결혼적령기에 대해 67.7%가 적령기가 '있다'고 하였으며, 여성의 이상적 결혼나이를 조사한 결과 평균 28.08세로 나타났고, 향후 결혼의향을 조사한 결과 89.0%가 결혼 할 생각이 '있다'고 하였으며, 결혼계획 나이는 평균 28.76세였다. 결혼을 할 생각이 있는 이유는 인생의 동반자를 원해서가 가장 많았으며, 결혼의무나 부모로부터 독립의 이유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결혼 할 생각이 없는 이유는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을 위해가 가장 많았으며, 결혼의 의무와 역할부담 등으로 나타났다. 여대생들은 결혼의사, 결혼의 의미, 결혼관계의 의식에 대하여 긍정적이었지만, 경제조

건, 혼전동거, 혼전 성관계, 만혼의 문제 등에는 부정적이였다.

셋째, 자녀출산의식에 대한 조사결과로 53.4%가 자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고, 39.6%는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였다. 한 가정의 이상적 자녀수는 평균 2.09명으로 나타났고, 실제 본인이 낳을 자녀수는 평균 1.81명으로 이상적 자녀수 보다 낮게 나타났다. 자녀를 두지 않거나 1명을 원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 육체적·정신적 부담, 직장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가사 및 양육의 불공평 분담의 이유 등으로 가족문제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가정에서 여자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2명이상 갖기 원하는 이유에서는 외동의 외로움, 자녀키움의 즐거움, 자녀는 많을수록 좋기 때문은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반면 사회적 책임감, 가계계승, 노후에 경제적 부양 등은 부정적 이유로 나타났다.

여대생의 부모가치, 자녀교육의식, 입양의식은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양육의 책임을 부부공동의 책임으로 보고 있으며, 77.2%가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의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사대상자가 생각하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용의 상승을 제일로 꼽았고, 사회지원 부족, 경기 불황과 실업을 증가순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주체로 정부가 57.6%로 가장 많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정책 중 출산, 자녀수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은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이 가장 많았고,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사대상자의 변인에 따른 결혼의사의 차이검증의 결과 생활과학 계열의 전공 일 때,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의 관계가 친밀하고 본인과 부모가 친밀할수록, 자신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의사가 높았다. 조사대상자의 변인에 따른 결혼계획 나이의 차이검증의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종교가 없는 여대생일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형제가 많을수록, 형제가 결혼한 경우, 부모의 부부친밀도가 낮을수록 결혼계획

연령을 높게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변인에 따른 출산의사의 차이검증의 결과 생활과학계열의 전공 일 때, 부모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본인과 부모가 친밀할수록, 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의식에 긍정적이었다. 조사대상자의 변인에 따른 실제 낳을 자녀수의 차이검증의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과학계열의 전공일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읍면지역에서 성장한 여대생일수록, 부모가 서로 친밀할수록, 본인과 부모가 친밀할수록,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제 낳을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관련변수를 통제했을 때, 여대생의 결혼의사는 생활과학계열일 때, 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높을 때 결혼의사가 있는 경향이 높았고, 여대생의 결혼계획 나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확대가족 일수록,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 자랐을수록, 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낮을수록, 본인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계획연령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변인을 통제하고 여대생의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생활과학계열일 때,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일 때, 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높을 때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경향이 높았으며, 여대생의 실제 낳을 자녀수는 나이가 적을수록, 생활과학계열 일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형제가 많을수록, 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높을수록 실제 낳을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대생들 대부분이 한 가정의 이상적인 자녀수보다 실제로 희망하는 자녀수가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육아와 교육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제도와 시설마련이 시급하며, 여성들이 안심하고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함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사회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의식전환 운동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
II. 우리나라의 결혼과 자녀출산 현황 및 의식 변화	4
1. 우리나라의 결혼현황	4
1) 결혼건수 및 결혼율	4
2) 초혼연령의 변화	5
3) 미혼율 추이	6
2. 우리나라의 출산현황	7
1) 합계 출산율	7
2) 첫 자녀 출산연령	8
3) 현존 자녀수	8
3. 결혼과 자녀에 관한 의식 변화	10
1) 결혼의식의 변화	10
2) 자녀 및 출산의식의 변화	12
III. 선행연구 고찰	16
1. 결혼의사 및 자녀출산의사 관련 선행연구 고찰	16
2.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정책대응	19
1) 저출산 현상의 원인	19
2)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책대응 및 평가	23

IV. 연구방법	33
1. 연구문제	34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34
3. 조사도구의 구성과 내용	36
4. 자료 분석방법	36
V. 연구결과 및 분석	38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8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38
2) 조사대상자의 가족관련 특성 및 취업관련 특성	40
2. 결혼 의식	42
3. 자녀출산 의식	46
4. 저출산 원인과 출산정책에 관한 의식	50
5. 배경변인에 따른 결혼 의사, 결혼계획 나이, 출산 의사, 실제 낳을 자녀수 차이 검증	52
1) 배경변인에 따른 결혼의사 차이 검증	52
2) 배경변인에 따른 결혼계획 나이 차이 검증	55
3) 배경변인에 따른 출산의사 차이 검증	58
4) 배경변인에 따른 실제 낳을 자녀수 차이 검증	62
6. 결혼 의사, 결혼계획 나이, 출산 의사, 실제 낳을 자녀수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66
1) 결혼의사의 영향요인	66
2) 결혼계획 나이의 영향요인	67
3) 출산의사의 영향요인	70
4) 실제 낳을 자녀수의 영향요인	70

VI. 결과 및 논의73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의 변화	4
<표 2> 평균 초혼연령의 변화	5
<표 3> 여성 미혼율의 변화	6
<표 4> 합계출산율의 변화	7
<표 5> 모(母)의 첫 자녀출산 평균연령 분포	8
<표 6> 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	10
<표 7>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39
<표 8> 조사대상자의 가족관련 특성 및 취업관련 특성	41
<표 9> 결혼 의식	45
<표 10> 자녀출산 의식	49
<표 11> 저출산 현상의 원인	50
<표 12> 출산정책에 관한 의식	51
<표 13>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결혼의사 차이	54
<표 14> 가정특성 변인에 따른 결혼의사 차이	55
<표 15>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결혼계획나이 차이	57
<표 16> 가정특성 변인에 따른 결혼계획나이 차이	58
<표 17>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출산의사 차이	61
<표 18> 가정특성 변인에 따른 출산의사 차이	62
<표 19>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실제 낳을 자녀수 차이	64
<표 20> 가정특성 변인에 따른 실제 낳을 자녀수 차이	65
<표 21> 결혼의사의 영향요인	68
<표 22> 결혼계획나이의 영향요인	69
<표 23> 출산의사의 영향요인	71
<표 24> 실제 낳을 자녀수의 영향요인	72

I. 서론

1. 연구의 배경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60년대에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던 합계출산율은 1980년에 2.83명으로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1984년에는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하였다. 이후에도 출산율 하락은 지속되어 2005년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

낮은 출산수준과 빠른 노령화는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별 구조를 변화시키고, 신규노동력의 부족, 노인부양 부담의 가중 등과 같은 직접적인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 집단의 출산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경제적 배경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 또한 변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변화되며, 결혼연령 상승이나 경제위기 등의 단순한 이유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정부의 강력한 인구 억제정책의 성공과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족의 변화 및 이동의 증가, 교육과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개인의 빠른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출산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혼인 연령의 상승, 미혼인구의 증가, 이혼의 증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의 약화 등으로 나타났다. (김태현, 2005).

또한 김승권(2002)는 저출산의 원인을 이혼율이 증가하는 반면 혼인율은 감소하고 또한 만혼 현상이 사회 전반에 퍼진 결과라고 보았다. 저출산의

원인을 더욱 세분화하여 간접적 요인으로 산업화와 도시화, 성공적 가족계획 사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결혼 가치관의 변화, 자녀 양육 부담의 증대를 들었다.

이와 같은 사회 전반의 저출산 기조가 지속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력 부족문제와 상대적인 노령인구비율의 급증에 따른 경제활동 연령층의 복지비 부담의 증가,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선택적인 출산에 기인한 성비불균형 등과 같은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유년인구의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가 특징이며,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령의 피부양인구의 증가를 유발한다. 20~24세의 여성의 출산율은 1970년 천명당 192.8명에서 1998년 48.0명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급격히 감소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초혼연령 상승으로 풀이되며, 이는 바로 첫째아이의 출산연령 상승으로 연결되었다. 또한 여성의 학력 및 경제활동 증가는 결혼연령의 상승을 의미하며 경제학적 관점에서 가정밖의 취업기회 확대와 임금의 증대는 여성의 지위 변화와 출산을 늦추는 원인이 된다(정구현, 2000).

최근 저출산에 관한 선행연구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가 정부의 인구증가억제를 위한 가족계획사업의 결과이며,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에 따른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과 이의 영향을 받은 미혼여성의 취업률 증가, 결혼연장, 첫 자녀 출산 지연 등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결혼, 가족, 사회 등에 관련된 가치관 변화, 여성의 자아욕구의 증대, 그리고 심화된 자녀양육부담 및 열악한 복지환경등도 인구대체수준 이하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라고 보여진다. 이상 연구를 토대로 볼 때 저출산에 대한 문헌들의 최근 경향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원인분석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저출산의 원인을 가치관의 변화와 가정교육의 영향으로 보고 앞으로 결혼과 출산을 앞둔 여대생들의 결혼과 출산계획을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들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고 실제 결혼과 출산 계획을 알아보고, 결혼과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앞으로 다가올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과 인구고령화 문제를 대비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가족 형성의 시작인 결혼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결혼 후 출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결혼 및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결혼관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결혼 및 출산관련 정책과 관련해서 적절한 출산율 유지를 위한 계획수립에 활용하며,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여대생들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여대생이 알고 있는 출산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인지수준을 살펴봄으로써 저출산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Ⅱ. 우리나라의 결혼과 자녀출산 현황 및 의식변화

1. 우리나라의 결혼현황

1) 결혼건수 및 결혼율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결혼건수 및 결혼율은 1980년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 결혼건수는 399,312건, 2000년 334,030건, 그리고 2003년 304,932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한편, 2004년에는 한 해 동안 결혼건수가 310,944건으로 증가를 보였고, 2005년에는 316,375쌍이 결혼하여 1일 평균 약 867쌍이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혼인율(인구천명당 혼인건수) 추세를 살펴보면, 1970년에는 9.2건에서 1980년에는 10.6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 9.3건, 2000년 7.0건으로 낮아졌다가 2002년 6.4건, 2003년 6.3건, 2004년에는 6.4건으로 꾸준히 유지되었다. 2005년 조혼인율은 6.5건으로 약간 증가하였지만, 이의 비율은 35년 전인 1970년의 9.2건보다 2.7건이 감소한 것이다.

2004년 이후 결혼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재혼 및 외국인과의 결혼 증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재혼율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2005년 결혼한 남녀 중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재혼인 재혼커플은 79,600건으로 전체 결혼커플의 25.2%에 달했다. 이의 비율은 2003년 22.1%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10년 전인 1995년 13.4%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다.

<표 1>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의 변화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혼인건수	295,137	403,031	399,312	344,030	320,063	306,573	304,932	310,944	316,375
조혼인율	9.2	10.6	9.3	7.0	6.7	6.4	6.3	6.4	6.5

조혼인율: 해당연도 혼인건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수치의 1,000분비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년도

외국인과의 결혼은 2005년 43,121건으로 총혼인건수 중 13.6%에 해당되었다. 2003년 25,658건에 비교해 68.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2005년 혼인한 부부 100쌍 중 13.6쌍이 외국인과 혼인한 것으로 해석된다(원영희, 2006).

2) 초혼연령의 변화

우리나라 평균 초혼연령은 꾸준한 증가추세로 결혼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다. 2005년 우리나라 남녀의 초혼연령은 남녀 각각 30.9세와 27.7세였다. 여성의 경우 1985년 24.1세였다가 1995년 25.4세, 2000년 26.5세, 2004년 27.5세로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5년과 10년 전인 1995년에 비해 남자는 2.5세, 여자는 2.3세가 각각 많아져 매년 남녀 모두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 초혼연령의 증가는 많은 원인이 있겠으나 교육수준의 증가,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 되어가고 있는 전통적 가치관의 와해 및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가치관 전환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결혼연령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1985년과 1990년 사이에 결혼한 여자는 1960년대 전반기 출생아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이며,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시기를 늦추게 되었다. 세대 내의 경쟁이 심하거나 경제적인 압박을 받음으로써 결혼을 받드시 해야 한다는 의식이 가파르게 약해졌다고 할 수 있다(김승권, 2005).

<표 2> 평균 초혼연령의 변화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27.0	27.8	28.4	29.3	29.6	29.8	30.1	30.6	30.9
여자	24.1	24.8	25.4	26.5	26.8	27.0	27.3	27.5	27.7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년도

3) 미혼율 추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결혼의 보편성이 특징인 사회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미혼율이 늘어나면서 결혼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으로 변화하였고, 초혼 연령의 상승과 함께 미혼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구체적으로 가임여성의 미혼율을 살펴보면, 20대 후반(25~29세) 연령층의 경우 1970년 9.7%였으나 1990년 22.1%, 2005년에는 46.2%로 증가하였고, 30대 초반(30~34세) 연령층은 1970년에는 1.4%에 해당되었으나 1990년 5.3%, 2005년에는 13.1%로 증가하였다. 30대 후반(35~39세) 연령층의 경우 1980년까지 미혼율은 1%이하였으나 1990년을 지나면서 더욱 빠르게 증가하여 2005년에는 미혼율이 5.3%에 이르렀다.

30~34세 이전 젊은 연령층의 미혼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30대 후반 미혼율의 증가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은 주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결혼에 의한 가족의 형성이 줄어들고 가족의 유지가 어려워진다면 앞으로 현재의 낮은 출산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김태현, 2005).

<표 3> 여성 미혼율의 변화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5~29세	9.7	11.8	14.1	18.4	22.1	29.6	40.1	46.2
30~34세	1.4	2.1	2.7	4.2	5.3	6.7	10.7	13.1
35~39세	0.4	0.7	1.0	1.6	2.4	3.3	4.3	5.3
40~44세	0.2	0.3	0.5	0.7	1.1	1.9	2.6	3.0

자료: 통계청,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 각년도

2. 우리나라의 출산현황

1) 합계 출산율

출산력의 변동추이는 합계출산율에 의하여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데,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한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한다. 1970년 4.53명 이었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하였고, 1990년 1.59명, 2000년 1.30명으로 감소하였다. 2005년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1972년에 비해 3.45명 감소한 수치이며 이는 저출산 현상을 일찍이 경험한 프랑스(1.89), 영국(1.64), 스웨덴(1.54), 독일(1.34), 일본(1.33)의 합계출산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OECD 평균 1.6명 보다도 낮다(김승권 외, 2003).

1970년대의 출산율 저하는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많은 자녀수에 대한 부담이 강조되고 가족계획사업의 홍보교육과 피임보급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1980년대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형성, 소자녀 규범의 정착, 그리고 이를 위한 각종 사회지원책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1997년 이후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IMF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증대, 소득격감,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결혼 및 출산을 연기 또는 기피하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향후 사회경제적 환경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현재의 낮은 출산율이 계속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김승권, 2003).

<표 4> 합계출산율의 변화

	1970	1983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출산율	4.53	2.08	1.59	1.47	1.30	1.17	1.19	1.16	1.08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년도

2) 첫 자녀 출산연령

1987년에서 2004년 까지 모의 첫 자녀 출산연령을 살펴보면 각 출산년도에서 25~29세의 분포가 가장 많았다. 20~24세와 25~29세의 분포는 낮아지는 반면 30~34세와 35~39세의 분포는 높아졌다. 2004년 첫 자녀 출산 평균연령은 28.9세로 10년 전인 1994년 26.4세 보다 2.5세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출산연령이 점진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다는 상태에서 건강한 우량의 자녀와 자녀출산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1990년도 이후에 인공유산에 의한 출산저하 효과는 감소하는 반면 혼인연령의 상승이 출산을 저하를 주도해 왔다고 보는 이도 있다(전광희, 2002).

<표 5> 모(母)의 첫 자녀 출산 평균연령 분포

	1987	1990	1994	1997	2000	2001	2002	2003	2004
20~24세	42.7	37.4	30.9	25.4	18.2	16.8	15.6	13.8	12.3
25~29세	47.1	51.3	54.7	58.7	60.0	58.0	55.3	54.6	52.1
30~34세	5.3	7.6	10.0	11.2	16.7	19.6	23.2	25.6	29.1
35~39세	0.8	1.1	2.0	2.5	3.0	3.5	3.8	4.1	4.6
평균연령	25.3	25.9	26.4	26.9	27.7	28.0	28.3	28.6	28.9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편), 각년도

3) 현존 자녀수

현존 자녀수는 현재 두 부부사이에 생존하고 있는 자녀를 모두 현존자녀수의 개념에 포함한 것으로 재혼한 가정의 경우 전처의 자식, 전남편의 자

식도 포함되며, 자녀가 결혼을 하여 출가하였더라도 현존자녀에 포함된다.

2003년 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 분포는 2000년과 비교하여 1명 이하의 자녀를 가진 비율은 감소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비율은 증가하였다. 자녀가 1명 이하인 부인은 27.4%이었고, 3명 이상인 부인은 12.0%이었으며,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60.6%로 나타났다.

따라서 1명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인의 비율은 1994년의 31.6%에서 인구 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된 1996년 직후의 조사인 1997년에는 29.3%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2000년 조사에서는 31.7%로 증가하였으며, 2003년에는 다시 27.4%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의 비율은 1994년의 15.1%에서 1997년 12.4%, 2000년 10.9%로 지속적인 감소양상을 보였다가 2003년에는 12.0%로 다시 증가하였다.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1994~2003년까지의 전체 조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특히 2003년 60.6%로 더욱 집중화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현존자녀수의 분포는 평균 현존자녀수의 시계열적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2003년의 평균 현존자녀수는 1.8명으로 1994년과 1997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2000년보다는 0.1명이 증가하였다. 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미약하나마 증가한 것은 2000년의 조사당시에는 국제통화기금의 관리 하에서 매우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있었으나 이제는 가장 힘든 경제난을 넘긴 시기이며,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이 다소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김승권, 2003). 이와 같은 해석은 결혼한 유배우부인의 경우에 한정된 것이므로 미혼여성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는 합계출산율이 더욱 저하된 것과는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6> 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

	1명 이하	2명	3명이상	계(수)	평균자녀수
1994 년	31.6	53.3	15.1	5,183	1.8
1997 년	29.3	58.3	12.4	5,419	1.8
2000 년	31.7	57.4	10.9	6,404	1.7
2003 년	27.4	60.6	12.0	6,599	1.8

자료: 김승권 외(2003),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결혼과 자녀에 관한 의식 변화

1) 결혼의식의 변화

전통사회에서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가족의 행사였지만 핵가족 중심으로 가족유형이 변화하면서 개인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빠르게 바뀌었다. 200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연구결과(김승권 외, 2003)에 의하면 미혼자 중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좋음’ 또는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음’으로 대답한 경우가 남자 19.4%와 여자 41.5%나 되었다. 이것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자의 결혼에 대한 선택적 응답이 남자의 두배 이상으로 나타난 것은 현 결혼제도가 여자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하겠다(김태현, 2005).

여성부에서 2003년도에 실시한 전국가족조사 결과(은기수, 2004)에서도 미혼남녀의 결혼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남자 28.0%와 여자 29.6%로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 더 높았다. 결혼계획이 없는 주된 이유로는 남자의 경우 ‘결혼생활을 위한 경제적 기반부족(35.7%)’과 ‘나의 일에 더 열중하기 위해(21.4%)’에 집중되었지만, 여자의 경우 ‘나의 일에 더 열중하기 위해(26.2%)’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24.4%)’이라고 대답한 경우

가 많았고, 경제적인 이유는 20.1%로 남자보다 훨씬 적었다. 특히,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 ‘결혼으로 인한 책임 의무 부담’, ‘결혼제도는 여성에게 불리’ 등과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요인이라고 대답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다. 남녀 공통적으로 경제적 기반부족과 자신의 일에 대한 열중의 비중이 높은 것은 최근 경제적 불황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다(이삼식 외, 2004).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미혼남성 중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는 71.4%, 부정적인 태도는 25.7%로 나타났으며, 미혼여성의 경우는 긍정적인 태도는 49.2%, 부정적인 태도는 48.6%로 나타나 미혼남성에 비해 미혼여성이 결혼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혼제도가 여성에게 더 많은 부담과 기회비용 손실을 요구하는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혼여성의 향후 결혼의향에 대한 태도는 73.8%가 결혼의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미혼여성의 8.8%는 결혼의향이 전혀 없다고 하였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미혼남성의 경우 경제적 이유, 미혼여성의 경우 결혼하기 이른 나이,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자아성취를 위해, 결혼비용 때문에,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혼여성의 경우 가치성향적 이유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미혼남녀가 여성의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결혼연령으로 28세(29.1%), 30세(25.1%), 27세(18.3%) 순으로 나타났고 평균 28.9세였다. 미혼여성 본인의 결혼계획연령은 28~29세(32.7%), 30~31세(26.1%), 20~27세(25.5%), 32~34세(10.2%) 순으로 평균 29.7세로 조사되었다. 미혼여성의 배우자조건으로는 경제력(30.8%), 성격(23.8%), 신뢰와 사랑(19.5%), 직업(7.1%) 순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뢰와 사랑, 가정환경을 중요시하였다.

미혼여성의 65.0%가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게 낫다’는 견해에 찬성하였으며,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78.0%가 반대하였고,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 67.5%가 찬성하였으며,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는 견해에 대해 44.7%가 찬성하였다.

2) 자녀 및 출산의식의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의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유배우부인(15~44세)의 이상 자녀수는 2000년에 2.2명이었으며, 출산력이 가장 왕성한 25~29세 유배우 부인의 경우도 2.1명으로 유사하였다(김승권 외, 2000). 이 수준은 1980년대 이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전광희, 2003). 그러나 미혼 남녀의 경우에는 이상 자녀수를 무자녀 또는 1명이라고 한 경우가 남녀 각각 27.5%와 34.2%나 되어 유배우자의 이상 자녀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미혼자가 결혼할 경우 이상 자녀수가 2명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결과에 의하면 1991년에 90.3%가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했으나 1997년에는 73.7%로 감소하였으며, 2003년에는 더 줄어서 54.5%만이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녀가 없어도 괜찮다는 응답도 12.6%나 되었다. 결혼을 해야 자녀 출산을 기대하는 우리 사회에서 결혼한 여성일지라도 출산을 꼭 하지 않아도 좋다는 가치관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출산수준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혼인연령의 상승과 미혼율의 증가에 의한 출산율 감소 외에 결혼 후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무자녀 부부나 한 자녀 가정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결혼

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약해질수록 출산율 감소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미혼남녀가 제시한 자녀가 있어야 하는 이유와 없어도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가 있어야 되는 이유로 남녀 모두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응답한 경우와 ‘결혼하면 자녀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자녀가 주는 기쁨/보람이 커서’에 응답(27.0%)이 남자의 경우(19.4%)보다 훨씬 많았으며,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2.5%)’나 ‘노후 부양을 위해서(0.9%)’로 대답한 경우는 극소수였다. 과거 자녀출산을 의무와 책임으로 인식했던 자녀관(가문의 대 잇기 또는 노부모 부양)에서 부모가 되는 가치, 자녀로부터 얻는 행복 등의 이유로 자녀를 선택적으로 갖겠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남녀 모두 유사하나 여자의 경우 더욱 뚜렷하였다.

미혼 남녀가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로 ‘아이는 좋지만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큼’과 ‘부부의 애정만으로도 충분’이 80%이상이지만 여자의 경우 ‘내 일을 하는데 부담’이 12.3%로 남자 5.1%의 두 배가 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직장에서의 불이익이나 가정에서의 육아부담까지 맡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혼남녀의 결혼계획이 없는 경우와 자녀가 없어도 좋다는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나의 일에 더 열중하기 위해’ 결혼계획이 없거나 ‘내 일을 하는데 부담’때문에 자녀가 없어도 좋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참가가 늘어나면서 결혼과 출산이 사회활동에 부담으로 인식하는 데서 오는 결과이다. 남자에 비하여 이러한 인식이 여자에게서 더 강한 것은 가정과 일을 양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2002년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사분담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경우가 37.9%인 반면에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은 8.1%에 불과하였다(통계청, 2004). 또, 여자들은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41.1%)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편견과 관행(21.7%)이라고 응답하였다.

여자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가정과 일의 양립이 어려우므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늘어가고, 무자녀나 한 자녀에 대한 선호가 늘어났다고 하겠다.

자녀의 양육만이 아니라 자녀 교육비에 대하여 매우 부담이 된다는 인식이 2004년에 전체 가구의 37.6%나 되었으며, 부담이 된다는 경우를 합하면 77.2%나 되었다(통계청, 2004). 자녀의 출산도 개인의 경제활동이나 행복을 위해 선택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비의 부담은 양육부담과 함께 출산을 기피하는 가치관 형성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미혼남녀의 자녀출산 의식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혼여성의 경우 이상적 자녀수로 2명(63.7%), 3명(15.9%), 1명(14.5%), 4명 이상(2.9%), 0명(1.4%) 순으로 평균 2.05명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88.7%가 자녀출산 의향이 있었으며, 출산의향 자녀수는 2자녀를 갖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자신의 자녀수는 여러 여건들을 감안하여 2.07명으로 나타났다. 1자녀 출산의향 이유에는 자녀양육, 교육비용 부담(46.8%), 소득부족(17.5%), 여가 및 자아성취(16.4%) 순으로 나타났고, 무자녀 의향의 이유로는 아이를 싫어해서(22.4%), 일·가정 양립곤란(16.3%), 자녀양육, 교육비용 부담(12.2%)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92.5%가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는 진술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는 진술에 79.2%가 긍정적 이었으며,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진술에 56.8%가 부정적 이었고,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진술에 70.2%가 부정적 이었으며,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는 진술에 64.5%가 부정적이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미혼여성의 저출산 문제와 저출산 정책에 대한 태도

를 조사하였는데 결과로는 미혼여성의 78.7%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였고, 고연령 층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기대자녀수가 많을수록 심각성의 인식정도가 높았다. 자녀출산, 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선호도에서는 일·가정 양립지원(39.9%),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16.3%), 자녀양육교육비용 지원(24.4%), 임신출산관련 의료지원(18.2%)로 나타났다.

Ⅲ. 선행연구 고찰

1. 결혼의사 및 자녀출산의사 관련 선행연구 고찰

김보경(2005)은 대구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종교, 전공, 형제관계, 성장지역, 집안 경제수준, 부모 월소득, 부모의 형제관계, 부모 최종학력, 부모 직업, 본인의 장래전망, 취업전망의 변인들을 사용하여 결혼의향, 이상적 자녀수, 실제 희망하는 자녀수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결혼할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상적 자녀수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본인 장래전망이 밝을수록, 결혼할 생각이 있을수록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희망 자녀수는 연령, 부모소득, 어머니 형제관계, 본인 장래전망, 결혼할 생각 유무에 영향을 받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실제 희망 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 형제수가 많을수록, 본인 장래전망이 밝을수록, 결혼할 생각이 있을수록 실제 희망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진경(2005)은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자녀관, 저출산 현상과 그 정책에 대한 인지도의 실태를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로는 93.5%가 결혼을 할 것이라고 하였고, 94.0%가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다고 하여 자녀출산의 의지가 상당히 높았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지수준은 저출산의 원인을 경제적 부담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저출산 현상은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고, 현재 시행중인 자녀출산 장려정책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 출산축하금 지급만이 효과적이지 않고, 그 외의 장려정책에 대해서

는 대체로 효과적이라고 나타났다.

김승권 외(2005)의 연구에서는 대도시 거주자가 타지역 거주자보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높게 보였으며, 남편이 부인보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기혼부부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보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유배우자와 사별자도 결혼을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다 많이 갖고 있었고, 소득이 많은 가구일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에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결과를 보면 30세 이상의 미혼 여자들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보다 젊은 여자들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남자들 중에는 전문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여자들 중에는 대학교 학생들이 자녀의 필요성에 대하여 비교적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남녀 모두 농어촌 거주자들이 대도시 거주자들보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자녀가치관의 영향요인으로 거주지역, 연령, 혼인상태, 취업여부, 가구소득, 현존자녀수, 현존아들수 등의 변수는 자녀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 대학생의 결혼관과 자녀관에 대해 연구한 양명숙(1996)의 연구결과는 결혼의 필요성은 여학생들의 가치관이 남학생들의 가치관보다 더 자유주의적 경향을 나타냈고, 결혼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연령, 출생순위,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 가정의 월수입, 가족의 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이는 성차에 의한 차이가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녀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 경향을 가지고 있었고, 긍정적인 자녀의 가치관은 연령, 출생순위,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 가정의 월수입, 가족의 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이는 모

두 성차에 의한 차이가 이들 변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되었다. 그리고 자녀관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결혼관이 진보적일수록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의 필요성은 대체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하여 결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는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은형(2004)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결혼에 대하여 보다 더 전통적인 경향을 보였다. 서정아(1994)의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전공, 종교, 부의 학력, 부모의 직업, 월평균 수입에 따라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주(1976)의 연구에 의하면 혼전순결에 대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허용적인 이중규범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과 더불어 과속화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사회와 가족제도의 변화로 혼전 성행위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와 애정이 전제된 혼전 성관계가 젊은 세대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석(1993)의 연구는 형제자매가 같이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관이 남아있으며, 결혼 후에는 꼭 자녀를 낳겠다는 애착은 강한 반면, 희망하는 자녀수에 대해서는 적은 수의 자녀에 한정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자녀수를 결정하는데, 매스컴과 직업의 유무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가치관, 자녀에 대한 가치관, 자녀양육 교육비 부담, 기회비용 부담, 성역할 의식을 독립변수로 하여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박현주(2006)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 총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기혼여성의 출산의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정책대응

1) 저출산 현상의 원인

산업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개인들의 업무 부담과 개인들의 생활부담도 따라서 증가한다. 생활부담의 증가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를 가져오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출산율의 저하를 초래한다. 출산율의 저하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히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지만 한국의 출산율 저하 현상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4). 저출산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다양한 원인들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김정이(2004)와 정구진(2005)의 논문에서 지적한 저출산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적 요인

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낮은 경제수준에 의한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 1962년부터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에 힘입어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괄목할만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 산업화 과정을 먼저 경험한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서 나타나듯 산업화는 도시화를 촉진시키며, 아울러 집단주의적 또는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퇴색시키고 서구적인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확산시킨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직업 및 교육 등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유인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여 이농향도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농촌중심의 사회에서는 많은 수의 자녀가 보편적이다. 도시생활에서는 주거환경, 자녀양육부담 등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제약으로 인하여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금전회득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가사분담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출산부담을 감소시키려는 노력 등으로 이어져 여성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기혼부인의 취업은 가족의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산, 양육, 노령층의 부양, 부부간의 관계와 역할 및 권력의 배분 등 가족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김승권 외, 2003).

2002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7%로 산업화 초기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수준의 상승 및 여성의 자아성취욕구 증대와 함께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여성지위의 향상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OECD 가입국, 경제규모 등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UN에서 개발한 남녀평등지수와 여성권한 척도의 수준을 보면 1997년 총 143개 국가 중 인간개발지수는 32위, 남녀평등지수는 35위, 여성권한척도는 73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8년에는 전체 174개국 중 인간개발지수는 31위, 남녀평등지수는 30위, 여성권한척도는 63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권리신장은 시급한 과제이긴 하지만 여성의 지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2) 정책적 요인

가. 성공적 가족계획사업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당시 높은 인구증가율과 1962년부터 경제개발계획과 병행하여 정부차원의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는 인구증가억제를 위해 가임기의 부인에게 피임을 권장하여 출산력을 저하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피임실천율과 합계출산율의 변화양상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1997년 80.5%로 정점을 이루던 피임실천율이 2000년에 79.3%로 약간 감소하는데 그쳤으나, 합계출산율은 1989년 정부피임보급 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에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1996년에 1.71의 수준에서 1999년에는 1.425의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피임실천율이 낮아질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피임을 실천하지 않은 부인의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하는데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모자보건사업의 강화(영아사망률의 저하)는 출산율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는 정부에 의하여 추진되어 온 모자보건사업의 효과로 볼 수 있다. 영아사망률은 1991년 10.0(영아1,000명당) 수준에서 계속 낮아져 1996년 7.7이였으며, 5세 미만 유아의 사망률도 계속 낮아져 1996년 남아의 경우 2.0(5세 미만유아 1,000명당), 그리고 여아의 경우 1.8로 나타났다(한영자 외, 1998).

(3) 가족 및 개인의 요인

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수준은 상승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인구 비율에서 잘 나타난다. 2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고등학교 학력을 소지한 인구의 비율은 1970년 남성 15.2%, 여성 5.6%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는 남성 41.2%, 여성 34.1%로 남성은 2.7배, 여성은 6.1배 증가하였다. 또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의 비율은 1970년 남성 8.5%, 여성 1.6%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는 남성 25.7% 여성 12.8%로 남성은 3.0배, 여성은 8.0배가 증가하였다.

결국 남성보다는 여성의 학력수준 상승이 상대적으로 더욱 빨리 진행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력수준이 가치관의 변화, 경제활동참여 증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볼 때, 여성의 학력 향상은 사회 및 가족에서의 여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여성자신의 생활양식의 변화로 직결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이현승 외, 2003).

나. 결혼가치관의 변화

과거 우리사회는 보편혼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혼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이제는 결혼이라는 사회제도에 대하여 반드시 해야한다는 의견이 감소하고 일종의 선택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결혼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 초혼연령의 지속적인 상승

한국사회에서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혼자 살기를 원하는 독신자의 증가로 미혼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남성보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강한 여성에게서 매우 현저하다. 이러한 추세는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이 일반화된 서구 선진국에서 먼저 나타났는데, 일본의 경우도 최근 30~34세 여성의 19.7%가 미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이러한 결혼가치관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자녀가치관의 변화

결혼을 하면 일정규모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그 정도는 점차 약해져 가고 있다. 결혼한 부부가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1991년에는 90.3%이었으나, 1997년에는 73.3%로, 2000년에는 58.1%로 감소하였다. 반면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는 1991년 8.5%, 1997년 26.0%, 2000년 41.55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또 젊은 연령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 향후에도 그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김승권, 2000).

마. 자녀양육의 부담

OECD 2000년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비 지출이 OECD국가들 중 1위를 차지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따르는 한국 부모의 경제적 부담감이 심각함을 나타내주었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계층에 따라 다르다. 그렇지만 경제발전과 교육수준 향상에 따라 자녀의 수보다는 질에 중점을 두게 되며, 이는 결국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문화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인적자질이기 때문이며, 이는 교육을 통하여서만 향상시킬 수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자녀의 사교육비 문제도 결국 이러한 바탕위에 경쟁원리가 도입되기 때문이다(강복화, 2003).

2)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책대응 및 평가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책대응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에서는 주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서 여성의 출산 유도에 관한 정책들을 행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노동부에서 발간한 여성과 취업(2006)을 통하여 현재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부정책을 알아보았다.

(1) 산전후 휴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시 60일의 산전후휴가제도를 도입하고, 2001년 11월부터는 30일을 연장하여 총 90일(산후 45일)의 산전후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종전에는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였으나 2001년 8월 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시 산전후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되 연장된 30일분의 급여는 모성보호비용을 사회분담화 한다는 방침에서 국가가 재정 및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일반회계의 일부 지원하에 고용보험기금에서 이를 부담하고 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급여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산전후휴가급여액은 90일분(대규모기업은 30일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최대 135만원에서 최저임금액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산전후휴가급여제도 시행 첫해인 2001년에는 11월 1일 이후 출산한 근로자부터 적용된 관계로 수급자가 2명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 4월부터 급여지급신청이 증가하여 총 22,711명, 22,602백만원을 지급받는 등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5년도에는 41,104명 46,041백만원을 지급받았다.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수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세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각지대가 남아있고 비용의 사회분담수준이 1/3에 불과하여 동 제도가 여성고용 기피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2003년도 중 산전후휴가비용 사회분담수준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5일근로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및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수립시 향후 사회분담수준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였다.

이후 2005년 5월 모성보호 3법을 개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90일(대규모기업은 종전대로 30일)의 휴가기간동안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회분담을 확대하였다.

또한 종전에 행정해석으로 인정하던 유산·사산휴가를 법제화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임신 16주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임신기간에 따라 30일에서 90일간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고 이 기간 동안 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산·사산휴가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

(2)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이란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에 대한 기회 및 대우균등에 관한 협약(제156호)』에서 아동보육과 가족에 관계되는 서비스 및 시설 등 공·사적인 지역사회 서비스를 발전·촉진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선진국에서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시 처음으로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였다. 법제정 당시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만을 육아휴직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5년 법 개정시 여성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인 남성근로자도 선택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육아가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존재하였으며,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지도 못하였다.

2001년 근로여성 모성보호 3법 개정시 육아의 문제가 남녀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에 입각하여 배우자인 여성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설하여 육아휴직근로자에게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의 요건으로 영아가 생후 1년 미만일 것,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일 것, 동일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지 않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3세까지 육아휴직이

인정되는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3세까지로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2005년 12월 육아휴직 규정을 개정하였다.

가. 육아휴직급여 지급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으로 사업주에게 급여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생계가 불안정한 근로자의 경우 이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2001년 법 개정시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설하였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남성은 1년, 여성은 10.5개월이다. 2006년 현재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40만원이고, 2007년부터는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급여 도입 이후 육아휴직자수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3년 육아휴직급여자는 총 6,816명으로 2002년의 3,763명에 비하여 약 45%정도 증가하였다. 육아휴직급여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 9,303명, 2005년 1인 평균 육아휴직 일수는 2005년도에 여성 211일, 남성 185일로 역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남성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1995년 이후 남성육아휴직자는 불과 2명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 법 개정후 남성육아휴직자의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육아책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남성육아휴직자수는 2002년 78명, 2003년 104명, 2004년 181명, 2005년 20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나.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육아휴직장려금제도는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5년 법 개정시 도입한 제도로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퇴직충당금, 각종 사회보험 등 간접노무관리비용 충당을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일정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05년 현재 근로자 1인당 육아휴직장려금은 월 20만원이며, 2005년 중 944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4,594명분의 육아휴직장려금으로 7,217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육아휴직자수에 비하여 육아휴직장려금수급자의 수가 적은 것은 동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외에 낮은 지원수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3) 직장보육시설

직장 내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숙련된 여성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보육시설’,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 개인이 가정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 사업주가 운영주체인 ‘직장보육시설’ 등 크게 4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이라 함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규정에 하여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인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장의 수가 많지 않아 2003년에는 지원요건을 대폭 개선한 바 있다. 융자이율을 3~3.5%에서 1~2%로 인하하고, 지원한도액을 무상지원은 95백만원에서 135백만원으로, 융자지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고, 운영비 지원요건

을 당해 사업장 근로자 자녀수가 1/2 이상일 것을 1/3 이상일 것으로 완화하였다. 2006년부터는 무상지원 한도액을 250백만원까지 확대하였고(3월 시행), 보육교사 등에 대한 지원을 월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하여 1995년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단지역 등 근로자 밀집지역에 공공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5년말 근로복지진흥기금(8개소) 및 고용보험기금(15개소)을 재원으로 공공직장보육시설 23개소를 개원하여 운영중에 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지원을 위하여 2003년 부산에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내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컨설팅, 용자, 운영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공공직장보육시설은 모두 12시간 종일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규모와 보육수요에 따라 야간보육, 방과 후 반 등도 운영하고 있다.

2003년 고용보험기금평가단으로부터 시설 설치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고용보험기금에서는 운영비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 이후 공공직장보육시설의 추가 설치는 중단된 상태이다.

(4) 여성취업지원

가. 여성재고용 및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임신·출산·육아문제로 퇴직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 7월부터 여성재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재취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생계비를 확보하기조차 어려운 여성가장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부터는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성재고용장려금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5년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서 6개월간 월 30~40만원을 지원하며,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신청하여 실업기간이

1월 이상인 여성가장 실업자를 지방노동관서의 취업알선에 의하여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서 12개월간 월 30~60만원(최초 6월간 월60만원, 이후 6월간 월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초기에는 사업주의 관심 부족으로 지급실적이 저조하였으나 꾸준히 지원실적이 증가하여 2005년에는 위 두 사업에서 2,278개 업체, 2,399명에 대하여 1,367백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였다.

나.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제도 도입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전후휴가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산전후휴가에 따른 비용부담, 업무공백 등으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기피하는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이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다.

2005년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 의하면 2005년 8월 현재 전체 근로자 14,968천명 중 비정규직은 5,483천명으로 36.6%이며, 이 중 여성이 2,747천명으로 5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전체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이 43.7%, 남성이 31.5%로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더라도 여성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남성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게 특화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2005년 12월 30일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제도(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5)를 신설하였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계약직 또는 파견직 여성근로자가 그 휴가·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종료 즉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6월간 지급하는 제도로써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년도에는

지원금액을 유기계약의 경우 매월 40만원, 무기계약의 경우 매월 60만원씩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기로 고시하였다.

그러나 처음 실시된 2006년 7월부터 1년 동안 수혜자가 단 1명에 불과했다. 임신 34주 이상, 또는 출산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을 바로 재고용해야 사업주에게 매달 40만~60만원을 보조한다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다. 노동부는 '34주 이상요건'을 16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 지방자치단체 시책 및 사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지원시책들을 결혼,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의 생애경로단계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임신관련 지원 시책들로 신혼부부 건강검진,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등이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고 출산과 관련한 지원시책들로는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용품 제공, 신생아 보험지원, 농가도우미/보육도우미 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출산 지원 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대부분은 주로 출산지원금(155개 지역) 또는 출산용품(72개 지역)을 채택하고 있다. 자녀양육과정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도 상당수(140개)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만 양육비용 및 보육시설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6).

가. 출산 축하금 지급

출산 축하금은 신생아의 출생을 사회적으로 환영하고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육아용품을 지급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시책으로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모든 출생아에게 10만원정도의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셋째 자녀부터만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2006년 현재 서울에서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자치구는 세곳으로 서대문구가 셋째 이후 출생 아동에게 한명당 10만원을 지급하고, 마포구는 둘째부

터 양친구는 신생아 전원에게 1인당 5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및 이농현상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급격한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내 농어촌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에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데 2006년에만 8788명이 다달이 30만원씩 지원받았고, 여수시는 셋째 자녀에게 출산지원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한다. 보성군은 첫째 240만원, 둘째 360만원, 셋째 600만원을 준다. 2003년부터 약 35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을 지원하였던 청원군은 2007년부터 출산 축하금으로 전환돼 첫째 3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180만원을 지원한다.

나. 보육료 지원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일하는 여성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2006년 현재 셋째 아이 이후 출생아로서 서울시의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만 2세 이하의 아동에게 부모가 부담하는 실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에 135,261명이 43,000,000천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았다. 인천시의 경우에도 2004년 1월부터 취업한 산모가 셋째아이를 출산하여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만 5세까지 월 2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경남 산청군에서는 2004년 1월부터 둘째 이상 자녀가 보육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본인 부담금 전액인 월 12만원에서 1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다. 분만비용 지원

보건복지부는 임신에서 출산까지 발생하는 각종 의료비용에 대한 임신부의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2005년부터 보건 복지부는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분만비 등 모든 보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포함하여 전액 건강보험

에서 지원하고 있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체중별로 300만원~700만원까지 의료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또한 모든 신생아에 대해 주요 산전하 검사인 풍진검사와 선천성 기형아검사를 2004년부터 보험 급여하고 있고 2006년부터 모든 신생아에 대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IV.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여대생의 결혼의식과 자녀출산의식, 저출산 현상과 출산정책에 대한 인지에 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을 알아보고, 배경변인에 따른 여대생들의 실제 결혼의사와 결혼계획나이, 자녀출산의사와 실제 낳을 자녀수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대생의 결혼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여대생의 자녀출산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배경변인에 따라 여대생의 결혼의사와 결혼계획나이, 자녀출산의사와 실제 낳을 자녀수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여대생의 결혼의사와 결혼계획나이, 자녀출산의사와 실제 낳을 자녀수는 어떤 배경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연구문제 5. 여대생의 결혼의사와 결혼계획나이, 자녀출산의사와 실제 낳을 자녀수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지역 대학교에 재학중인 미혼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는 2006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에 걸쳐서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의 설문지는 총 400부를 배부하여 회수하지 못한 설문지와 부실하게 기재되어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설문지 72부를 제외한 총 328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3. 조사도구의 구성과 내용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조사도구는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 관련 특성, 취업관련 특성에 관한 문항과 결혼의식에 관한 문항, 자녀출산에 관한 문항, 저출산 현상 및 정부정책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사용한 자료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작성된 설문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여대생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연령, 전공, 종교, 가족형태, 가정 월평균 소득, 부모의 직업, 부모의 최종학력, 형제관계, 형제결혼 유무, 부모의 이혼경험의 유무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19세 이하, 20세~24세, 25세 이상으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전공은 가족과 가정, 자녀가치관에 대해 교육을 받은 생활과학계열

과 비생활과학계열로 구분하고, 종교는 종교의 유무로, 가족형태는 핵가족과 확대가족으로 구분하고, 성장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가족관련 변인은 부모의 민주주의 성향, 부모의 부부 친밀도, 부모와 본인의 친밀도, 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 등 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5점 리커트 척도로 5점은 ‘매우 만족한다’, 4점은 ‘만족한다’, 3점은 ‘보통이다’, 2점은 ‘불만족 한다’, 1점은 ‘매우 불만족한다’로 측정하였다. 취업관련 변인은 본인의 취업희망 정도의 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2) 결혼의식

결혼의식에 관한 문항은 결혼에 대한 인식, 결혼 적령기에 대한 인식, 결혼희망, 결혼의사가 있는 경우 결혼계획 나이, 배우자 선택 시 고려사항에 대해 질문하였고, 결혼선택 이유와 독신선택 이유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결혼의 의미, 혼전 성관계, 혼전 동거, 이혼, 만혼 등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5점 리커트 척도로 5점은 ‘매우 그렇다’, 4점은 ‘그렇다’, 3점은 ‘보통이다’, 2점은 ‘그렇지 않다’,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하였다.

3) 자녀출산의식

자녀출산의식에 관한 문항은 자녀출산에 대한 생각, 이상적 자녀수, 실제 낳을 자녀수, 실제 낳을 자녀수의 이유, 자녀양육책임, 여성의 직장생활에 대한 생각에 대해 질문하였고, 부모 가치, 입양, 자녀교육 등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5점 리커트 척도로 5점은 ‘매우 그렇

다’, 4점은 ‘그렇다’, 3점은 ‘보통이다’, 2점은 ‘그렇지 않다’,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하였다.

4) 저출산 현상과 출산정책

저출산 현상과 출산정책에 관한 문항은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5점 리커트 척도로 5점은 ‘매우 그렇다’, 4점은 ‘그렇다’, 3점은 ‘보통이다’, 2점은 ‘그렇지 않다’,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하였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주체, 출산정책의 효율성과 출산계획에 영향을 주는 정책 등으로 구성하였다.

4. 자료 분석방법

질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각 분석 목적에 맞추어 SPSS WIN 14.0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결혼의식, 자녀출산의식, 저출산 현상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는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실행하였다.

결혼의사 및 자녀출산의사는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분산분석을 사용하였고, 결혼계획 나이와 실제 낳을 자녀수는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고,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 방법인 Duncan의 다중범위검증(Duncan's multiple test)을 실시하였다.

결혼의사와 자녀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결혼계획 나

이와 출산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하기 위해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고려하였다.

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20~24세가 55.8%로 가장 많았고, 19세 이하는 27.7%, 25세 이상은 16.5%로 나타났으며, 평균 22.88세였다.

전공을 살펴보면 생활과학계열은 62.5%, 비생활과학계열이 37.5%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의 경우 63.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6.6%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를 살펴보면, 핵가족은 92.1%, 확대가족은 7.9%로 나타났다.

성장지역을 살펴보면, 대도시에서 성장한 경우가 7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중·소도시는 20.1%, 읍면지역은 6.4%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18.6%, 200~400만원 미만이 48.8%, 400만원 이상이 32.6%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가정의 소득수준은 중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직업을 살펴보면, 서비스 판매, 근로자가 42.5%로 가장 많았고, 관리자, 전문가가 24.1%, 준전문가, 사무종사자가 23.8%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주부가 55.7%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판매, 근로자가 30.5%, 준전문가, 사무종사자가 6.5%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의 경우 고졸이 53.5%, 대졸이상이 37.8%, 중졸이하 8.9%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학력에서는 고졸이 62.8%, 대졸이상이 20.3%, 중졸이하는 16.9%로 아버지의 학력보다 다소 낮은 경향임을 알 수 있다.

형제관계를 살펴보면, 형제가 1명인 경우가 59.1%로 가장 많았으며, 2명인 경우는 27.7%, 3명 이상인 경우는 9.5%, 외동인 경우가 3.7%로 나타났다. 형제가 있는 경우 중 형제가 결혼한 경우는 11.7%, 형제가 결혼하지 않은 경우는 88.3%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이혼, 별거 등의 경험 유무의 경우는 없는 경우가 90.5%로 있는 경우 9.5%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7>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N=328)

변인	분류	N	%	변인	분류	N	%
연령	19세 이하	91	27.7	부의 직업	관리자, 전문가	76	24.1
	20~24세	183	55.8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75	23.8
	25세 이상	54	16.5		서비스 판매, 근로자	134	42.5
M=21.88			기타		30	9.5	
전공	생활과학계열	205	62.5	모의 직업	관리자, 전문가	15	4.6
	비생활과학계열	123	37.5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21	6.5
					서비스 판매, 근로자	99	30.5
					주부	181	55.7
종교	유	208	63.4	부의 학력	중졸이하	28	8.9
	무	120	36.6		고졸	168	53.5
					대졸이상	119	37.8
가족 형태	핵가족	302	92.1	모의 학력	중졸이하	55	16.9
	확대가족	26	7.9		고졸	204	62.8
					대졸이상	66	20.3
성장 지역	대도시	241	73.5	형제 관계	외동	12	3.7
	중·소도시	66	20.1		1명	194	59.1
	읍면지역	21	6.4		2명	91	27.7
			3명이상		31	9.5	
가정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61	18.6	형제 결혼	유	37	11.7
	200~400만원 미만	160	48.8		무	279	88.3
	400만원 이상	107	32.6	부모 이혼	유	31	9.5
			무		297	90.5	

* 각변수의 결측치가 달라 표본수가 일치하지 않음.

2) 조사대상자의 가족관련 특성 및 취업관련 특성

조사대상자의 가족관련 특성 및 취업관련 특성은 5점 리커트 척도(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2점, 매우 그렇지 않다=1점)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부모의 민주주의 성향은 평균 3.72(SD=.82)로 민주주의 성향에 가까웠고, 부모의 부부 친밀도는 평균 3.64(SD=.95)로 부모님의 관계는 친밀한 편이었으며, 부모와 본인의 친밀도는 평균 3.91(SD=.85)로 친밀한 편이었다. 결혼한 형제가 있는 조사대상자의 경우 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평균 3.81(SD=.89)로 높은 편이었고,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평균 3.63(SD=.93)로 높은 편이었다.

본인의 취업희망 정도는 평균 4.41(SD=.74)로 높게 나타나 여대생의 대부분이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동부(2000)에서 여대생의 취업 희망여부를 조사한 결과 장래에 직업을 갖기 원하는 여학생이 98.6%로 높은 수치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김선영(2000)의 연구 결과에서 여대생의 62.2%가 취업을 하겠다고 하였고, 진학 및 편입은 30.5%, 결혼 및 무계획인 경우가 7.4%로 여대생들이 대학졸업 후 진학보다는 취업계획을 가지고 있고, 결혼보다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싶어한 결과와 유사하며, 이는 졸업 후 여학생들이 직업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표 8> 조사대상자의 가족관련 특성 및 취업관련 특성

변인	특성	N	평균	표준편차
가족관련 변인	부모의 민주주의 성향	327	3.72	.82
	부모의 부부 친밀도	325	3.64	.95
	부모와 본인의 친밀도	327	3.91	.85
	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	36	3.81	.89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	328	3.63	.93
취업관련 변인	본인의 취업희망 정도	328	4.41	.74

2. 결혼 의식

조사대상자들의 결혼에 대한 의식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결혼에 대한 인식은 조사대상자의 64.6%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33.3%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15.2%, 하는 편이 좋다는 49.4%,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29.0%,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4.3%, 잘 모르겠다는 2.1%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에서 조사한 연구결과 미혼여성 중에서 41.5%가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좋음’ 또는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음’으로 대답한 결과와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미혼여성의 경우는 긍정적인 태도는 49.2%, 부정적인 태도는 48.6%로 나타난 결과 보다 부정적 태도가 낮은 수치인데, 조사대상자가 여대생이기 때문에 미혼여성보다 결혼에 대한 인식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결혼적령기에 대한 인식은 67.7%가 적령기가 ‘있다’라고 하였으며 ‘없다’는 32.3%로 나타났다. 결혼 적령기가 있다고 답한 조사대상자에게 여성의 이상적 결혼나이를 조사한 결과 28~29세가 47.3%로 가장 많았고, 27세 이하는 32.0%, 30세 이상은 20.7%로 평균나이는 28.08세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에서 미혼여성이 생각하는 결혼적령기 연령의 28.9세와 비슷한 수치이다.

배우자 선택 시 고려사항은 경제력(36.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뢰와 사랑(24.5%), 성격(16.4%), 가정환경(11.5%)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에서 미혼여성의 경우 배우자 선택 고려사항 중 경제력을 가장 중요시하였던 조사결과와 일치한다.

여대생들이 실제 결혼 할 생각이 있는지 향후 결혼의사를 조사한 결과는 결혼 할 생각이 ‘있다’는 89.0%,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11.0%로 나타났다. 결혼할 생각이 있는 여대생들에게 본인의 결혼계획 나이를 조사한 결과 2

8~29세가 38.7%로 가장 많았으며, 30세 이상이 36.0%, 27세 이하는 25.3% 이었고 본인의 결혼계획나이는 평균 28.76세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에서 미혼여성의 결혼계획 평균연령인 29.7세보다 약간 낮은 수치이다.

조사대상자의 결혼계획여부에 따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을 할 생각이 있는 이유로는 생의 동반자를 원해서(M=4.25)'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기 위해서(M=3.78)',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M=3.72)', '자녀를 갖고 싶어서(M=3.47)',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M=3.06)'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들도 대부분 하니까(M=2.74)',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M=2.64)'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결혼할 생각이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을 위해서(M=3.92)'가 가장 높았으며, '결혼에 따른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M=3.83)', '결혼생활이 자유롭지 못해서(M=3.81)', '아직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이므로(M=3.42)', '경제적 이유로(M=3.39)'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03년 여성부에서 실시한 조사결과 결혼계획이 없는 주된 이유로 여자의 경우 '나의 일에 더 열중하기 위해(26.2%)'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24.4%)'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많았고, 경제적인 이유는 20.1%로 남자보다 훨씬 적었고, 특히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 '결혼으로 인한 책임 의무 부담', '결혼제도는 여성에 불리' 등과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요인이라고 대답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던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결혼에 관한 태도를 구체적인 항목으로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혼의식을 나타내는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라는 항목은 평균 4.11(SD=.74)로 앞의 결혼인식이 긍정적 이었던 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고, 결혼의 의미를 나타내는 '결혼은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평균 4.09(SD=.77)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결혼관계의 의식을 나타내는 '결혼

은 개인보다 가족관계가 우선해야 한다'라는 견해는 평균 3.75 (SD=.85)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혼의식을 나타내는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의 항목은 평균 3.24(SD=1.10)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조사에서 미혼여성의 65.0%가 이혼을 찬성하였던 결과와 유사하다.

반면 경제조건을 나타내는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도 결혼할 것이다'라는 항목은 평균 2.15(SD=.86)로 나타나 배우자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경제력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결과와 일치한다.

동거의식을 나타내는 항목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라는 항목은 평균 2.91(SD=1.09)로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의 조사결과 동거에 대해 미혼여성의 44.7%가 찬성하여 보수적 경향을 보여주었던 결과와 일치한다. 혼전 성관계에 대한 항목 '결혼 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평균 2.97(SD=1.12), 만혼에 대한 항목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이다'는 평균 2.98 (SD=1.0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부정적 의식을 갖고 있었다.

<표 9> 결혼 의식

(N=328)

변인		빈도	비율	변인		빈도	비율
결혼에 대한 인식	반드시 해야한다	50	15.2	배우자 선택시 고려사항	외모 등 신체적조건	23	3.9
	하는 편이 좋다	162	49.4		경제력	211	36.1
	해도좋고 안해도좋다	95	29.0		학벌	8	1.4
	하지 않는 편이 좋다	14	4.3		종교	31	5.3
	잘 모르겠다	7	2.1		신뢰와 사랑	143	24.5
				성격	96	16.4	
				가정환경	67	11.5	
				기타	5	0.9	
결혼적령기 유무	있다	222	67.7	결혼 계획 여부	있다	292	89.0
	없다	106	32.3		없다	36	11.0
여성의 이상적 결혼 나이 (N=222)	27세 이하	71	32.0	본인의 결혼 계획 나이 (N=292)	27세 이하	74	25.3
	28~29세	105	47.3		28~29세	113	38.7
	30세 이상 (M=28.08)	46	20.7		30세 이상 (M=28.76)	105	36.0
변인				평균	표준편차		
결혼계획 유무의 이유	결혼할 생각이 있는 이유 (N=292)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3.72	.74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기 위해서		3.78	.74		
		인생의 동반자를 원해서		4.25	.66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3.06	.94		
		자녀를 갖고 싶어서		3.47	1.08		
		남들도 대부분 하니까		2.74	1.07		
	결혼할 생각이 없는 이유 (N=36)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2.64	1.13		
		경제적 이유로		3.39	1.13		
		사회생활에 장애가 될 것 같아서		3.31	1.06		
		결혼생활이 자유롭지 못해서		3.81	.95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을 위해서		3.92	.80		
		결혼생활을 해낼 자신이 없어서		3.25	1.23		
결혼에 관한 태도	결혼에 따른 의무와 역할의 부담		3.83	1.08			
	아직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이므로		3.42	1.27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2.53	1.18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4.11	.74			
	결혼은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09	.77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3.75	.85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도 결혼할 것이다		2.15	.86			
	결혼 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2.97	1.12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2.91	1.09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게 낫다		3.24	1.10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이다		2.98	1.05				

3. 자녀출산 의식

여대생의 자녀출산 의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자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53.4%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39.6%, ‘딸은 꼭 필요하다’는 2.7%, ‘아들은 꼭 필요하다’는 0.3%로 나타났다.

한 가정의 이상적 자녀수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2명 이상이 90.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 2명이 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명 이상이 22.3%이었고, 1명은 2.7%, 없어도 상관없다는 7.0%로 평균 2.0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에서 미혼여성의 이상자녀수에 대한 조사결과와 일치하며 평균 2.05명으로 나타난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자녀양육의 책임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의 84.8%가 ‘부부공동’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다음으로 ‘가족구성원 중 가능한 사람’이 9.5%, ‘어머니’와 ‘국가’가 각각 2.4%로 나타나 자녀양육의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다는 전통적 의식에서 벗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결혼 후 여성의 직장생활에 대한 항목은 ‘계속한다’가 48.5%, ‘육아 후 다시 직장생활을 계속한다’가 28.7%로, 취업을 원하는 여대생들의 대부분이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의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본인이 낳을 자녀수(출산의향 자녀수)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2명 이상이 72.3%를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 2명이 5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명 이상이 19.6%이었으며, 없어도 상관없다는 14.3%, 1명은 13.4%로 평균 1.81명으로 나타났다. 이상적 자녀수보다 실제 낳을 자녀수가 낮은 수치이다.

실제 낳을 자녀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를 두지 않거나 1명을 원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로’, ‘육체적·정신적

부담 때문에’,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가 각각 평균 3.80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가정 내에서 가사 및 양육이 남성과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지 않아서’는 평균 3.64(SD=.91)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M=2.20)’, ‘필요성을 못 느껴서(M=2.55)’,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울 것 같아서(M=3.04)’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두지 않거나 1명을 원하는 이유는 사회적 이유, 가족문제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가정에서 여자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를 2명 이상 갖기 원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동은 외로울까봐(M=4.13)’, ‘자녀를 키우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M=3.51)’, ‘자녀는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M=3.46)’, ‘노후에 외로울까봐(M=3.11)’는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반면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M=2.23)’, ‘가계 계승을 위해서(M=2.36)’, ‘노후에 경제적 부양 때문에(M=2.43)’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의 연구에서 자녀가 부모 노후에 경제도움, 가문계승, 국가의무 등의 도구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이숙재(1983)의 연구에서도 여대생들은 자녀가 주는 개인적인 측면과 가정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나, 자녀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부여하는 사회적 가치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자녀출산에 대한 태도를 구체적인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가치를 나타내는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항목은 평균 4.11(SD=.74)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의 조사에서 미혼여성의 92.5%가 이 진술에 대해 찬성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녀교육의식을 나타내는 ‘나는 어떤 일을 해서라도 자녀를 끝까지 교육시키겠다’는 평균 3.92(SD=.82)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이 조사결과는 출산, 자녀수에 대한 생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 중에서 ‘자녀양육 및 교

육비 지원'을 가장 많은 선택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입양의식을 나타내는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라는 항목은 평균 3.42(SD=1.01)로 긍정적이는데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조사에서 미혼여성의 67.5%가 입양에 대해 찬성한 결과와 일치한다.

'여성의 자유로운 생활 및 미용건강 등 개인적인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가 출산기피에 영향을 미친다'의 항목은 평균 3.39(SD=.85), '여건이 된다면 자녀는 많을수록 좋다'의 항목은 평균 3.35(SD=1.19)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는 항목은 평균 2.47(SD=1.09)로 부정적으로 나타나 미혼여성의 78.0%가 반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조사와 일치한다. '자녀를 키우는데 들이는 시간을 직장이나 일 등 사회적 성공을 위해 쓰는 것이 더 낫다'라는 항목의 평균은 2.82(SD=.91)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10> 자녀출산 의식

(N=328)

변인		빈도	비율	변인		빈도	비율
자녀에 대한 의식	자녀는 반드시 필요하다	175	53.4	자녀양육의 책임	어머니	8	2.4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	130	39.6		아버지	3	.9
	아들은 꼭 필요하다	1	.3		부부공동	278	84.8
	딸은 꼭 필요하다	9	2.7		가족구성원 중 가능한 사람	31	9.5
	기타	13	4.0		국가	8	2.4
한 가정의 이상적 자녀수	없어도 상관없다	23	7.0	결혼후 여성의 직장생활	계속한다	159	48.5
	1명	9	2.7		가정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그만둔다	61	18.6
	2명	223	68.0		무조건 그만둔다	1	.3
	3명 이상 M=2.09	73	22.3		임신하면 그만둔다	7	2.1
실제 희망 자녀수	없어도 상관없다	47	14.3	육아 후 다시 직장생활을 계속한다	육아 후 다시 직장생활을 계속한다	94	28.7
	1명	44	13.4				
	2명	173	52.7				
	3명 이상 M=1.81	64	19.6				
변인				평균	표준편차		
실제 희망 자녀수에 대한 이유	자녀를 두지 않거나 1명을 원하는 이유 (N=91)	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	2.20	1.13			
		필요성을 못 느껴서	2.55	1.17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울 것 같아서	3.04	1.07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3.76	.89			
		경제적 이유로(양육비용 및 교육비용)	3.80	.97			
	이유 (N=237)	육체적·정신적 부담 때문에	3.80	.86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	3.80	.95			
		가정 내에서 가사 및 양육이 남성과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지 않아서	3.64	.91			
		외동은 외로울까봐	4.13	.78			
		자녀는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3.46	1.02			
자녀를 2명 이상 갖기 원하는 이유 (N=237)	자녀를 키우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3.51	.90				
	가계 계승을 위해서	2.36	.86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2.23	.82				
	노후에 외로울까봐	3.11	1.05				
	노후에 경제적 부담때문에	2.43	.83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4.03	.78				
	여성의 자유로운 생활 및 미용건강 등 개인적인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가 출산기피에 영향을 미친다	3.39	.85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	3.42	1.01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2.47	1.09				
	여건이 된다면 자녀는 많을수록 좋다	3.35	1.19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들이는 시간을 직장이나 일등 사회적 성공을 위해 쓰는 것이 더 낫다	2.82	.91				
나는 어떤일을 해서라도 자녀를 끝까지 교육 시키겠다	3.92	.82					

4. 저출산 원인과 출산정책에 관한 의식

조사대상자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조사대상자가 생각하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용의 상승(M=4.55)’이 가장 높았고, 이는 정부 정책 중 출산, 자녀수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조사한 결과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이 35.8%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그 다음으로 ‘아동보육시설의 부족 등 사회지원 부족(M=4.26)’, ‘경기 불황과 실업을 증가(M=4.12)’, ‘취업여성의 증가(M=3.98)’, ‘독립적인 생활과 개인적 성취를 중시하는 의식확산(M=3.90)’, ‘과거보다 더 편하게 살기 원하는 의식 확산(M=3.63)’, ‘초혼연령의 상승 및 이혼부부의 증가(M=3.55)’, ‘남아선호사상의 저하 등 자녀가치관의 변화(M=3.09)’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저출산 현상의 원인 (N=328)

저출산 현상의 원인	평균	표준편차
경기 불황과 실업을 증가	4.12	.70
취업여성의 증가	3.98	.80
초혼연령의 상승 및 이혼부부의 증가	3.55	.83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용의 상승	4.55	.60
아동보육시설의 부족 등 사회지원 부족	4.26	.76
과거보다 더 편하게 살기 원하는 의식확산	3.63	.89
독립적인 생활과 개인적 성취를 중시하는 의식확산	3.90	.81
남아선호사상의 저하 등 자녀 가치관의 변화	3.09	.96

출산정책에 관한 의식을 알아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주체를 조사한 결과는 ‘정부’가 57.6%로 가장 많았고, ‘본인의 의지(7.3%)’, ‘기업(7.3%)’, ‘사회단체(2.7%)’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이 모두가 해결주체가 되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 중 출산, 자녀수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이 35.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양육비와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가 32.6%로, 이는 본 연구에서 결혼 후 여성의 직장생활에 대해 직장생활을 계속한다가 48.5%, 육아 후 다시 직장생활을 계속한다가 28.7%로, 여대생들의 대부분이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원하는 결과와 일치한다.

<표 12> 출산정책에 관한 의식 (N=328)

변인	분류	빈도	백분율
저출산 문제의 해결주체	본인의 의지	74	22.6
	기업	24	7.3
	정부	189	57.6
	사회단체	9	2.7
	기타	32	9.8
출산, 자녀수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부정책	출산축하금 지급	24	3.7
	불임치료 및 기형아 검진비등 지원	45	6.9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214	32.6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	235	35.8
	보육시설확충	99	15.1
	아파트 우선분양 등 주거지원 강화	33	5.0
	기타	6	0.9

5. 배경변인에 따른 결혼 의사, 결혼계획 나이, 출산 의사,

실제 낳을 자녀수 차이 검증

1) 배경변인에 따른 결혼의사 차이 검증

조사대상자의 결혼의사가 인구학적변인 및 가족특성 변인, 취업관련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배경변인에 따른 결혼의사에 대한 차이검증의 분석 결과는 <표 13>과 <표 14>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여대생의 전공, 어머니의 학력, 부모의 부부 친밀도, 부모와 본인의 친밀도, 본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전공에 따른 결혼의사의 차이를 보면, 결혼의사가 있는 경우는 생활과학계열이 64.4%, 비생활과학계열이 35.3%로 생활과학계열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결혼의사가 없는 경우는 생활과학계열이 47.2%, 비생활과학계열이 52.8%로 비생활과학계열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공의 특성상 가정과 가족 등 가족가치관 교육을 많이 받는 생활과학계열의 여대생들이 결혼의사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학력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결혼의사가 있는 여대생과 없는 여대생 모두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일 경우가 가장 많았다. 결혼의사가 있는 여대생의 어머니 학력은 대졸이상이 21.4%, 중졸이하는 15.5%였고, 결혼의사가 없는 여대생의 어머니 학력은 중졸이하가 28.6%, 대졸이상이 11.4%로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보경(2005)의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결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의사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부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관련변인에서 부모의 부부 친밀도를 살펴보면 결혼의사가 있는 여대생은 평균 3.70(SD=.92)으로 나타났고, 결혼의사가 없는 여대생은 평균 3.11(SD=1.06)로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들 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본인의 친밀도를 살펴보면 결혼의사가 있는 여대생은 평균 3.95(SD=.81)로 나타났고, 결혼의사가 없는 여대생은 평균 3.64(SD=1.05)로 나타났다. 즉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부모와 본인의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결혼의사가 있는 여대생은 평균 3.68(SD=.90)로 나타났고, 결혼의사가 없는 여대생은 평균 3.22(SD=1.07)로 나타났다. 즉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생활과학계열의 전공 일 때,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의 관계가 친밀하고 본인과 부모가 친밀할수록, 자신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의사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교육의 중요함과 자신의 생활이 만족스럽고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것은 결혼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3>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결혼의사 차이

(N=328)

변인	분류	있다 (N=292)		없다 (N=36)		x ²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연령	19세 이하	79	27.1	12	33.3	1.21
	20~24세	166	56.8	17	47.2	
	25세 이상	47	16.1	7	19.4	
전공	생활과학계열	188	64.4	17	47.2	4.03**
	비생활과학계열	104	35.6	19	52.8	
종교	유	189	64.7	19	52.8	1.98
	무	103	35.3	17	47.2	
가족 형태	핵가족	271	92.8	31	86.1	1.97
	확대가족	21	7.2	5	13.9	
성장 지역	대도시	214	73.3	27	75.0	.07
	중·소도시	59	20.2	7	19.4	
	읍면지역	19	6.5	2	5.6	
가정의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53	18.2	8	22.2	1.14
	200~400만원 미만	141	48.3	19	52.8	
	400만원 이상	98	33.6	9	25.0	
부의 직업	관리자, 전문가	66	23.3	10	31.3	5.38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69	24.4	6	18.8	
	서비스 판매, 근로자	124	43.8	10	31.3	
	기타	24	8.5	6	18.8	
모의 직업	전업주부	164	56.6	17	48.6	.81
	취업주부	126	43.4	18	51.4	
부의 학력	중졸이하	23	8.1	5	15.6	2.75
	고졸	150	53.0	18	56.3	
	대졸이상	110	38.9	9	28.1	
모의 학력	중졸이하	45	15.5	10	28.6	4.72*
	고졸	183	63.1	21	60.0	
	대졸이상	62	21.4	4	11.4	
형제 관계	외동	11	3.8	1	2.8	.26
	1명	173	59.2	21	58.3	
	2명	80	27.4	11	30.6	
	3명 이상	28	9.6	3	8.3	
형제 결혼	유	32	11.4	5	14.3	.25
	무	249	88.6	30	85.7	
부모 이혼	유	25	8.6	6	16.7	2.46
	무	267	91.4	30	83.3	

*p<.1, **p<.05, ***p<.01

<표 14> 가정특성 변인에 따른 결혼의사 차이 (N=328)

변인	분류	있다 (N=292)		없다 (N=36)		F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족관련 변인	부모의 민주주의 성향	3.74	.78	3.64	1.10	.45
	부모의 부부 친밀도	3.70	.92	3.11	1.06	12.73***
	부모와 본인의 친밀도	3.95	.81	3.64	1.08	4.33**
	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	3.87	.80	3.40	1.34	1.22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	3.68	.90	3.22	1.07	7.81***
취업관련 변인	본인의 취업희망 정도	4.42	.73	4.31	.82	.83

*p<.1, **p<.05, ***p<.01

2) 배경변인에 따른 결혼계획 나이 차이 검증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관련 변인의 특성, 취업관련 특성에 따라 결혼계획나이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사후검정으로 Duncan의 다중범위검증(Duncan's multiple test)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특성에 따른 결혼계획나이의 차이 검증의 분석결과는 <표 15>와 <표 16>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여대생의 연령, 종교, 가족형태, 어머니의 학력, 형제관계, 형제결혼의 유무, 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여대생의 연령을 살펴보면, 19세 이하의 여대생은 평균 27.93세, 20~24세의 여대생은 평균 28.42세, 25세 이상의 여대생은 평균 31.32세일 때 결혼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계획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난다. 이는 현재 자신의 연령에 맞게 결혼계획연령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에 따른 결혼계획 나이는 종교가 있는 여대생일 경우에는 평균 28.57세, 종교가 없는 여대생일 경우에는 평균 29.10세로, 종교가 없는 여대생이 있는 여대생보다 결혼연령을 높게 계획하였다.

가족형태에 따른 결혼계획나이는 핵가족인 여대생은 평균 28.68세, 확대가족인 여대생은 29.74세로 나타났는데, 가족형태가 확대가족인 여대생이 핵가족인 여대생보다 결혼연령을 높게 계획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이하일 경우 29.32세, 고졸일 경우 28.77세, 대졸이상일 경우 28.24세로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연령을 높게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관계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형제가 3명 이상일 경우 30.27세로 결혼계획나이가 가장 높고, 형제가 2명일 때는 29.20세, 형제가 1명일 때는 28.34세, 외동일 경우 28.09세로 나타났으며 형제가 많을 경우 결혼계획나이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한 형제가 있는 경우 결혼한 형제가 없는 경우보다 높은 결혼연령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결혼한 형제가 있는 여대생은 31.05세, 결혼한 형제가 없는 여대생은 28.49세로 결혼연령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대생의 결혼계획연령은 부모의 부부 친밀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부모가 서로 친밀하지 않을수록 결혼계획 연령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여대생의 결혼계획나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종교가 없는 여대생일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형제가 많을수록, 형제가 결혼한 경우, 부모의 부부친밀도가 낮을수록 결혼계획연령을 높게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결혼계획나이 차이 (N=292)

변인	분류	N	평균 (D)	표준편차	F 값
연령	19세 이하	79	27.93 A	1.92	47.32*
	20~24세	166	28.42 A	1.93	
	25세 이상	47	31.32 B	2.37	
전공	생활과학계열	188	28.59	2.27	2.71
	비 생활과학계열	104	29.05	2.34	
종교	유	189	28.57	2.37	3.54*
	무	103	29.10	2.15	
가족 형태	핵가족	271	28.68	2.27	4.16**
	확대가족	21	29.74	2.62	
성장 지역	대도시	214	28.67	2.34	1.70
	중·소도시	59	28.76	2.08	
	읍면지역	19	29.68	2.52	
가정의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53	28.77	2.76	.04
	200~400만원 미만	141	28.79	2.10	
	400만원 이상	98	28.70	2.35	
부의 직업	관리자, 전문가	66	28.44	2.55	1.43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69	28.46	1.70	
	서비스 판매, 근로자	124	28.93	2.25	
	기타	24	29.27	3.00	
모의 직업	전업주부	164	28.68	2.17	.31
	취업주부	126	28.83	2.48	
부의 학력	중졸이하	23	28.87	2.64	1.90
	고졸	150	28.95	2.21	
	대졸이상	110	28.40	2.29	
모의 학력	중졸이하	45	29.32 A	2.67	2.93*
	고졸	183	28.77 AB	2.01	
	대졸이상	62	28.24 B	2.75	
형제 관계	외동	11	28.09 A	1.14	7.68***
	1명	173	28.34 AB	2.12	
	2명	80	29.20 B	2.57	
	3명 이상	28	30.27 C	2.15	
형제 결혼	유	32	31.05	2.91	38.54***
	무	249	28.49	2.06	
부모 이혼	유	25	29.22	2.53	1.11
	무	267	28.71	2.28	

*p<.1, **p<.05, ***p<.01

<표 16> 가정특성 변인에 따른 결혼계획나이 차이 (N=292)

변인	분류	회귀계수 B	F 값	R ²
가족관련 변인	부모의 민주주의 성향 상수	-.106 29.142	.366	.001
	부모의 부부 친밀도 상수	-.338** 30.000	5.297	.018
	부모와 본인의 친밀도 상수	.004 28.733	.000	.000
	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 상수	.478 29.228	.518	.018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 상수	.069 28.500	.215	.001
취업관련 변인	본인의 취업희망 정도 상수	-.287 30.027	2.427	.008

* p<.1, ** p<.05, *** p<.01

3) 배경변인에 따른 자녀출산의사 차이 검증

조사대상자의 자녀출산의사가 인구학적변인 및 가족특성 관련 변인, 취업 관련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배경변인에 따른 자녀출산의사의 차이검증의 결과는 <표 17>과 <표 18>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 중 전공, 부모의 부부 친밀도, 부모와 본인의 친밀도, 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전공에 따른 자녀출산의사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경우는 생활과학계열이 70.3%, 비생활과학계열이 29.7%로 생활과학계열

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의 경우는 생활과학계열이 52.3%, 비생활과학계열이 47.7%로 나타났다. 즉, 생활과학계열인 여대생은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비율이, 비생활과학계열의 여대생은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공의 특성상 가정과 가족 등 가족가치관 교육을 많이 받는 생활과학계열의 여대생들이 자녀출산의사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부부 친밀도를 살펴보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대생은 평균 4.01(SD=.79),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여대생은 평균 3.81(SD=.89)로 나타났다. 즉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여대생의 부모의 친밀도가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여대생 부모 보다 부부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본인의 친밀도를 살펴보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대생은 평균 3.80(SD=.92),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여대생은 평균 3.48(SD=.95)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대생과 부모의 친밀도가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여대생과 부모의 친밀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대생의 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평균 4.09(SD=.81),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여대생의 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평균 3.55(SD=.52)로 나타났다. 즉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여대생의 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여대생의 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자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대생은 평균 3.74(SD=.87)로 나타났고,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여대생은 평균 3.50(SD=.98)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대생이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여대생보다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생활과학계열의 전공 일 때, 부모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본인과 부모가 친밀할수록, 형제의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의식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7>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출산의사 차이 (N=315)

변인	분류	있어야 한다 (N=185)		없어도 상관없다 (N=130)		x ²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연령	19세 이하	55	29.7	32	24.6	1.89
	20~24세	95	53.0	79	60.8	
	25세 이상	32	17.3	19	14.6	
전공	생활과학계열	130	70.3	68	52.3	10.6***
	비 생활과학계열	55	29.7	62	47.7	
종교	유	121	65.4	78	60.0	.96
	무	64	34.6	52	40.0	
가족 형태	핵가족	170	91.9	120	92.3	.02
	확대가족	15	8.1	10	7.7	
성장 지역	대도시	136	73.5	94	72.3	.12
	중·소도시	37	20.2	28	21.5	
	읍면지역	12	6.5	8	6.2	
가정의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28	15.1	29	22.3	2.88
	200~400만원 미만	98	53.0	60	46.2	
	400만원 이상	59	31.9	41	31.5	
부의 직업	관리자, 전문가	47	26.4	27	21.6	1.07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43	24.2	31	24.8	
	서비스 판매, 근로자	74	41.6	55	44.0	
	기타	14	7.9	12	9.6	
모의 직업	전업주부	107	58.5	71	55.0	.36
	취업주부	76	41.5	58	45.0	
부의 학력	중졸이하	13	7.3	13	10.4	3.49
	고졸	103	57.9	59	47.2	
	대졸이상	62	34.8	53	42.4	
모의 학력	중졸이하	25	13.7	25	19.4	2.06
	고졸	121	66.1	77	59.7	
	대졸이상	37	20.2	27	20.9	
형제 관계	외동	7	3.8	5	3.8	5.07
	1명	110	59.5	78	60.6	
	2명	47	25.4	41	31.5	
	3명 이상	21	11.4	6	4.6	
형제 결혼	유	23	12.9	11	8.8	1.25
	무	155	87.1	114	91.2	
부모 이혼	유	18	9.7	13	10.0	.08
	무	167	90.3	117	90.0	

*p<.1, **p<.05, ***p<.01

<표 18> 가정특성 변인에 따른 출산의사 차이 (N=315)

변인	분류	있어야 한다 (N=185)		없어도 상관없다 (N=130)		F 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가족관련 변인	부모의 민주주의 성향	3.75	.83	3.70	.78	.29
	부모의 부부 친밀도	4.01	.79	3.81	.89	4.32**
	부모와 본인의 친밀도	3.80	.92	3.48	.95	8.82***
	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	4.09	.81	3.55	.52	4.09*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	3.74	.87	3.50	.98	5.24**
취업관련 변인	본인의 취업희망 정도	4.42	.76	4.45	.69	.20

*p<.1, **p<.05, ***p<.01

4) 배경변인에 따른 실제 낳을 자녀수 차이 검증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관련 변인의 특성, 취업관련 특성에 따라 실제 낳을 자녀수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사후검정으로 Duncan의 다중범위검증(Duncan's multiple test)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에 따른 실제 낳을 자녀수의 차이 검증의 분석결과는 <표 19>와 <표 20>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여대생의 연령, 전공, 종교, 성장지역, 부모의 부부 친밀도, 부모와 본인의 친밀도,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여대생의 연령과 실제 낳을 자녀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19세 이하의

여대생은 평균 1.96명, 20~24세의 여대생은 평균 1.81명, 25세 이상의 여대생은 평균 1.54명으로, 연령이 낮은 여대생일수록 실제 낳을 자녀수가 많이 나타났다. 연령이 낮은 여대생은 20대 중후반 이후보다는 결혼과 출산까지 간격이 보다 덜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김보경(2005)의 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실제 희망자녀수가 많이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전공에 따른 실제 낳을 자녀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생활과학계열의 여대생이 평균 1.98명, 비생활과학계열의 여대생이 평균 1.52명의 자녀수를 낳을 것으로 계획하였다. 이는 결혼의사와, 자녀의사의 연구결과에서 생활과학계열의 여대생이 결혼할 의사가 높았고, 자녀의사에서 긍정적인 반면, 비생활과학계열의 여대생은 부정적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종교에 따른 실제 낳을 자녀수는 종교가 있는 여대생일 경우에는 평균 1.88명, 종교가 없는 여대생일 경우에는 1.68명으로 종교가 있는 여대생이 없는 여대생보다 실제 낳을 자녀수가 많이 나타났다.

성장지역과 실제 낳을 자녀수와의 관계는 대도시에서 성장한 여대생은 평균 2.07명, 중소도시에서 성장한 여대생은 평균 2.00명, 읍면지역에서 성장한 여대생은 평균 2.14명으로 읍면지역에서 자란 여대생일수록 많은 자녀를 낳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보경(2005)의 연구에서 읍면지역에서 자란 대학생이 2명 이상의 실제 자녀수를 갖기 희망하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가족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의 부부 친밀도, 부모와 본인의 친밀도, 본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부모가 서로 친밀할수록, 본인과 부모가 친밀할수록,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제 낳을 자녀수가 많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요약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과학계열의 전공의 여대생일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읍면지역에서 성장한 여대생일수록, 부모가 서로 친밀할수록, 본인과 부모가 친밀할수록,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제 낳을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실제 낳을 자녀수 차이 (N=328)

변인	분류	N	평균 (D)	표준편차	F 값
연령	19세 이하	91	1.96 A	.93	3.12**
	20~24세	183	1.81 AB	1.03	
	25세 이상	54	1.54 B	.86	
전공	생활과학계열	205	1.98	.89	17.65***
	비생활과학계열	123	1.52	1.07	
종교	유	208	1.88	1.00	3.48*
	무	120	1.68	.94	
가족 형태	핵가족	302	1.80	.97	.04
	확대가족	26	1.85	1.16	
성장 지역	대도시	241	1.73	.96	3.35**
	중·소도시	66	2.00	1.02	
	읍면지역	21	2.14	1.01	
가정의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61	1.59	.97	1.86
	200~400만원 미만	160	1.85	.92	
	400만원 이상	107	1.87	1.07	
부의 직업	관리자, 전문가	76	1.89	1.05	1.48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75	1.83	.88	
	서비스 판매, 근로자	134	1.84	.96	
	기타	30	1.47	1.07	
모의 직업	전업주부	181	1.80	.93	.09
	취업주부	144	1.83	1.04	
부의 학력	중졸이하	28	1.86	.97	.26
	고졸	168	1.85	.88	
	대졸이상	119	1.76	1.12	
모의 학력	중졸이하	55	1.73	.99	.28
	고졸	204	1.83	.93	
	대졸이상	66	1.85	1.13	
형제 관계	외동	12	2.00	.74	1.83
	1명	194	1.74	1.02	
	2명	91	1.81	.98	
	3명 이상	31	2.16	.78	
형제 결혼	유	37	1.65	.95	.98
	무	279	1.82	1.00	
부모 이혼	유	31	1.74	1.09	.15
	무	297	1.81	.97	

* p<.1, ** p<.05, *** p<.01

<표 20> 가정특성 변인에 따른 실제 낳을 자녀수 차이 (N=328)

변인	분류	회귀계수 B	F 값	R ²
가족관련 변인	부모의 민주주의 성향 상수	.81 1.505	1.479	.005
	부모의 부부 친밀도 상수	.198*** 1.080	12.340	.037
	부모와 본인의 친밀도 상수	.118* 1.345	3.381	.010
	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 상수	.184 .883	1.066	.030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 상수	.136** 1.316	5.466	.016
취업관련 변인	본인의 취업희망 정도 상수	.066 1.515	.818	.003

*p<.1, **p<.05, ***p<.01

6. 결혼 의사, 결혼계획 나이, 출산 의사,

실제 낳을 자녀수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여대생의 배경변인들이 결혼의사, 결혼계획나이, 출산의사 및 실제 낳을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가족특성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다중공선성이 높은 가족특성 변인들을 나누어서 회귀모형을 구성하였다.

1) 결혼의사의 영향요인

결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인구학적 변인, 가족특성 변인, 취업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순차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합적 모형이라 할 수 있는 모형3의 분석결과 결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 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전공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데 생활과학계열의 전공이 비 생활과학계열보다 결혼의사가 1.94배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부부 친밀도도 정적으로 유의하여 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높아질수록 자녀의 결혼의사가 높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밖에 취업관련변인은 여대생의 결혼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생활과학계열일 때, 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높을 때 결혼할 경향이 높다.

2) 결혼계획 나이의 영향요인

여대생의 결혼계획나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된 회귀분석 결과는 <표 22>에 제시하였다.

최종모형인 모형3의 분석결과 결혼계획나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종교, 가족형태, 성장지역, 부모의 부부 친밀도, 본인의 가정생활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연령과 가족형태,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종교, 성장지역, 부모의 부부 친밀도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확대가족일수록,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 자랐을수록, 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낮을수록, 본인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계획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 3-1의 결과, 다른 관련 변인들을 통제 했을때, 형제가 많을수록, 부모와 본인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부부친밀도가 낮을수록 결혼계획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결혼관계가 친밀할수록 자녀는 결혼을 더 빨리하기를 원하고, 부모와 자녀관계가 친밀할수록 자녀는 결혼을 더 늦게하기를 원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1> 결혼의사의 영향요인

(N=325)

변인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Exp(B)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인구학적 변인	연령	-.007	.993	.007	1.007	-.001	.999	-.010	.990	.008	1.008	.012	1.012
	전공1)	.763**	2.144	.669*	1.952	.725*	2.065	.714*	2.043	.668*	1.951	.664*	1.943
	종교2)	.316	1.371	.213	1.238	.274	1.315	.219	1.245	.209	1.232	.200	1.222
	가족형태3)	-.903*	.406	-.753	.471	-.852	.426	-.737	.479	-.754	.471	-.732	.481
	어머니 학력4)	.729	2.073	.599	1.821	.683	1.980	.589	1.803	.599	1.821	.632	1.881
가족특성 변인	부모의 부부 친밀도			.521***	1.683					.482**	1.619	.464**	1.591
	부모와 본인의 친밀도					.365*	1.441			.080	1.084	.085	1.088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							.441**	1.554				
취업관련 변인	본인의 취업희망 정도											.159	1.172
상수		1.675		-.335		.183		.290		-.522		-1.257	
x ²		9.727*		16.879*		12.720**		15.071**		16.983**		17.405**	
Pseudo R ²		.029		.049		.037		.044		.049		.051	

*p<.1, **p<.05, ***p<.01

주1) 전공: 생활과학계열=1, 비생활과학계열=0

주2) 종교: 있음=1, 없음=0

주3) 가족형태: 확대가족=1, 핵가족=0

주4)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1, 고졸이하=0

<표 22> 결혼계획 나이의 영향요인

(N=325)

변인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β	β	β	β	β	β	β
인구학적 변인	연령	.574***	.571***	.576***	.573***	.567***	.561***	.573***	.565***
	전공1)	.008	.018	.005	.006	.017	.020	.017	.020
	종교2)	-.098**	-.096**	-.101**	-.103**	-.100**	-.107**	-.100**	-.107**
	가족형태3)	.081*	.080*	.081*	.088*	.076	.086*	.077	.087*
	성장지역4)	-.100**	-.101*	-.103*	-.099**	-.111**	-.103**	-.109**	-.102**
	가정소득5)	-.074	-.056	-.085*	-.081*	-.062	-.056	-.061	-.055
	형제관계	.082	.079	.088*	.084*	.091	.081	.091*	.081
가족특성 변인	부모의 부부 친밀도		-.063			-.137**	-.141**	-.139**	-.142**
	부모와 본인의 친밀도			.062		.135**		.134**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				.052		.132**		.130**
취업관련 변인	본인의 취업희망 정도							.029	.020
상수		20.130	20.724	19.425	19.683	19.942	20.386	19.482	20.068
F 값		25.406***	22.231***	22.231***	22.396***	20.720***	20.615***	18.641***	18.516***
R ²		.385	.388	.387	.388	.401	.399	.401	.400
adj R ²		.370	.371	.369	.370	.381	.380	.380	.378

*p<.1, **p<.05, ***p<.01

주1) 전공: 생활과학계열=1, 비생활과학계열=0

주2) 종교: 있음=1, 없음=0

주3) 가족형태: 확대가족=1, 핵가족=0

주4) 성장지역: 대도시=1, 나머지=0

주5) 가정소득: 400만원 이상=1, 400만원 이하=0

3) 출산의사의 영향요인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분석결과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 아버지 학력, 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전공, 아버지 학력, 부모의 부부 친밀도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생활과학계열일 때,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일 때, 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높을 때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경향이 높다.

4) 실제 낳을 자녀수의 영향요인

여대생의 실제 낳을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된 회귀분석 결과는 <표 2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실제 낳을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전공, 종교, 형제관계, 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 종교, 형제관계, 부모의 부부 친밀도는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적을수록, 생활과학계열 일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형제가 많을수록, 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높을수록 실제 낳을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24> 실제 낳을 자녀수의 영향요인

(N=325)

변인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β	β	β	β	β
인구학적 변인	연령	-.188***	-.181***	-.186***	-.191***	-.181***	-.181***
	전공1)	.196***	.183***	.190***	.188***	.182***	.182***
	종교2)	.113**	.096*	.107**	.101*	.096*	.096*
	성장지역3)	.056	.053	.056	.052	.053	.054
	가정소득4)	.090	.063	.080	.078	.063	.063
	형제관계	.147***	.157***	.153***	.148***	.158***	.158**
가족특성 변인	부모의 부부 친밀도		.129**			.124*	.124*
	부모와 본인의 친밀도			.079		.008	.008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				.098*		
취업관련 변인	본인의 취업희망 정도						-.001
상수		2.088	1.579	1.717	1.766	1.558	1.562
F값		6.799***	6.977***	6.138***	6.348***	6.088***	5.394***
R ²		.113	.133	.119	.122	.134	.134
adj R ²		.096	.114	.099	.103	.112	.109

*p<.1, **p<.05, ***p<.01

주1) 전공: 생활과학계열=1, 비생활과학계열=0

주2) 종교: 있음=1, 없음=0

주3) 성장지역: 대도시=1, 기타=0

주4) 가정소득: 400만원 이상=1, 400만원 이하=0

VI.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여대생의 결혼의식, 자녀출산의식 및 저출산의 현상과 출산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곧 결혼과 출산을 앞둔 여대생들의 실제 결혼과 출산계획을 조사하여 우리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의식에 대한 조사결과 결혼인식은 64.6%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15.2%, 하는 편이 좋다는 49.4%,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29.0%,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4.3%, 잘 모르겠다 2.1%로 나타났다. 배우자 선택 시 고려사항은 경제력이 가장 높았고, 신뢰와 사랑, 성격, 가정환경 순이었고, 결혼적령기에 대해 67.7%가 적령기가 '있다'라고 하였으며, 여성의 이상적 결혼나이를 조사한 결과 평균 28.08세로 나타났고, 향후 결혼의향을 조사한 결과 89.0%가 결혼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였으며, 본인의 결혼계획 나이는 평균 28.76세였다. 결혼을 할 생각이 있는 이유로 인생의 동반자를 원해서가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안정, 나에게 도움, 자녀를 갖기 위해, 성적욕구 충족의 순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의무나 부모로부터 독립의 이유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결혼 할 생각이 없는 이유는 자아실현과 자기개발 위해가 가장 높았으며, 결혼의 의무와 역할부담, 자유롭지 못한 생활,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 경제적 이유 순으로 나타났다. 여대생들은 결혼인식, 결혼의 의미, 결혼관계의 의식에 대하여 긍정적 이었지만, 경제조건, 혼전동거, 혼전 성관계, 만혼의 문제에는 부정적으로 견해를 보였다.

둘째, 자녀출산의식에 대한 조사결과로 53.4%가 자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고, 39.6%는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였다. 한 가정의 이상적 자녀수는 2명 이상이 90.3%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평균 2.09명으로 나타났다. 실제 본

인이 낳을 자녀수는 2명 이상이 72.3%를 차지하여 평균 1.81명으로 나타나 이상적 자녀수 보다 낮게 나타났다.

자녀를 두지 않거나 1명을 원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 육체적, 정신적 부담, 직장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가사 및 양육의 불공평 분담의 이유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부부만의 생활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두지 않거나 1명을 원하는 이유는 사회적 이유, 가족문제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가정에서 여자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2명 이상 갖기 원하는 이유로는 외동의 외로움, 자녀키움의 즐거움, 자녀는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노후의 외로움 등의 이유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적 책임감, 가계계승, 노후에 경제적 부양 등의 이유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의 책임에 대해 85.4%가 부부공동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자의 77.2%가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의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의 부모가치, 자녀교육의식, 입양의식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부정적, 자녀를 키우는데 들이는 시간을 직장이나 일 등 사회적 성공을 위해 쓰는 것이 더 낫다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용의 상승을 제일로 꼽았고, 사회지원 부족, 경기 불황과 실업률 증가, 취업여성의 증가, 독립적 생활과 개인적 성취를 중시하는 의식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 중 출산, 자녀수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은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이 가장 많았고,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가 다음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변인에 따른 결혼의사의 차이검증의 결과 전공, 어머니

의 학력, 부모의 부부 친밀도, 본인과 부모의 친밀도,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받았는데, 생활과학계열의 전공일 때,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의 관계가 친밀하고 본인과 부모가 친밀할수록, 자신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의사가 높았다.

조사대상자의 변인에 따른 결혼계획 나이의 차이검증의 결과 연령, 종교, 어머니의 학력, 형제관계, 형제 결혼유무, 부모의 부부 친밀도에 영향을 받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종교가 없는 여대생일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형제가 많을수록, 형제가 결혼한 경우, 부모의 부부친밀도가 낮을수록 결혼계획 연령을 높게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변인에 따른 출산의사의 차이검증 결과 전공, 부모의 부부 친밀도, 본인과 부모의 친밀도, 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받았는데, 생활과학계열의 전공일 때, 부모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본인과 부모가 친밀할수록, 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의식에 긍정적이었다.

조사대상자의 변인에 따른 실제 낳을 자녀수의 차이검증의 결과 연령, 전공, 종교, 성장지역, 부모의 부부 친밀도, 본인과 자녀의 친밀도,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받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과학계열의 전공의 여대생일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읍면 지역에서 성장한 여대생일수록, 부모가 서로 친밀할수록, 본인과 부모가 친밀할수록,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제 낳을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결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 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고, 생활과학계열일 때, 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높을 때 결혼의사가 있는 경향이 높다.

여대생의 결혼계획나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종교, 가족형태, 성장지역, 부모의 부부 친밀도, 본인의 가정생활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확대가족 일수록,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 자랐을수록, 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낮을수록, 본인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계획연령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출산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 아버지 학력, 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으며, 생활과학계열일 때,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일 때, 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높을 때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경향이 높다.

실제 낳을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전공, 종교, 형제관계, 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으며, 나이가 적을수록, 생활과학계열 일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형제가 많을수록, 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높을수록 실제 낳을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들은 미혼남녀들의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결혼이나 자녀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대생들 대부분이 한 가정의 이상적인 자녀수보다 실제로 희망하는 자녀수가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사회의 육아와 교육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는데 있어서 장애 요인을 살펴보고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제도와 시설마련이 시급하며, 여성들이 안심하고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여대생의 실제 결혼계획과 출산계획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공이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생활과학계열의 여대생은 비생활과학계열에 비해 전공의 커리큘럼에서 가정, 가족, 자녀 출산에 대해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는 생활과학계열 전공 교육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여대생들에게 가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심어줄 교과과정, 결혼과 출산의 긍정적 의식, 저출산 현상의 문제인식을 갖기 위한 교양과목의 개설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부모의 부부 친밀감, 본인과 부모의 친밀감, 본인의 생활만족도 등 가정관련 특성 변인도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가정생활에서 보여지는 부모의 모습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미혼 남·녀를 위한 결혼과 출산에 관한 교육뿐 아니라 개별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도 장기적인 결혼·출산의식 변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가정교육, 사회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의식전환 운동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 교육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 및 NGO와 연계하여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사회운동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관계 교육프로그램이나 결혼교육, 그리고 가족문화 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적극 활용이 요구된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확충하고 각 가정의 주부 및 남편을 동원하여 저출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그들의 의식을 전환하여 우리사회의 중요한 이슈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구명숙, 홍상욱(2004). 독신생활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여성연구
- 김두섭, 김정석, 송유진, 최양숙(2005). 가족구조와 관계의 변화 및 전망.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김미숙(1987). 한국 청소년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김보경(2005). 대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승권 외(2005). 인구전환기의 한국사회 가치관 및 가족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2003).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과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최병호, 정경희 외(2002).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2000). 한국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옥(1999). 우리나라 여대생의 배우자 선택 및 결혼관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생활과학학회지, 8(1) 1-13.
- 김은형(2004). 10대 후반 청소년들의 인구의식과 가족가치-대전시 고등학생의 사례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례(2005). 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경(2004). 젊은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연속성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3).
- 김희선, 성미애(1993). 배우자 선택과정에 관한 사적고찰. 대한가정학회지.
- 김태현(2005). 가치관 변화와 저출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현주(2006).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

- 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보건복지부(2006).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시책 사례집.
- 서정아(1994). 결혼 및 자녀에 대한 대학생들의 가치관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성자(2002). 가족과 가족치료. 법문사.
- 송영석(1993). 청소년의 희망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명숙(1996). 예비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2).
- 옥선화(2003). 20-30대 기혼남녀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지각수준과 저출산 대책.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대책 세미나집.
- 옥선화, 정민자, 고선주(2002). 결혼과 가족. 하우.
- 옥선화(1989). 현대한국인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원영희(2006). 줄어드는 결혼, 늘어나는 이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은기수(2004). 가치관, 혼인 및 출산, 전국가족조사에 따른 한국가족의 현실과 정책전망. 여성부
- 은기수(2001). 현대 한국사회의 가족가치관-결혼에 대한 태도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삼식(2006). 저출산 원인과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연주(2003). 결혼 및 출산 등의 가족형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가정과 직장의 병립을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승, 김현진(2003). 늙어가는 대학민국: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삼성경제연구소.
- 장진경(2005).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

-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3(11).
- 장혜경 외(2005).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전광희(2003). 한국의 출산력 변천: 추이와 예측. 통계연구.
- 전광희(2002). 한국의 저출산 추이와 전망.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정구진(2005). 저출산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구현(2000). 한국의 출산력 추이와 전망 통계청 통계분석연구 제5권 2호.
- 정상훈(2005). 저출산에 따른 여성복지정책의 개선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남훈 외(1999). 저출산시대의 인구문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성혜(2004).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저출산 대응법제와 과제.
- 최신덕(1991). 결혼과 가족관계. 기린원.
- 통계청(2006). 200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02). 한국노동 조합원대상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실태조사 보고서.
- 한선영(2005).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영자 외(1998). 1996년 영아사망을 및 후기 출산기 사망률의 수준과 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emo, D.H., & Acock, A(1988). The impact of divorce o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Vogel, L(1993). Mothers on the Job. New Jersey: Rotgers University Press.

ABSTRACT

Research on Female College Students' Views on Marriage and Childbirth

Cho, Yun Jung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to analyze perceptions of female college students on marriage, children, childbirth, low birth rates, and maternity policies; to analyze the intents on marriage and children of female college students, who are soon to get married and have children; to find what variables bring about these effects; to survey plans, which these women have on marriage age and number of children; to find the variables, which caused these effects.

For the purpose of the research, a survey was conducted on 328 single female college students, attending schools located in Seoul. The SPSS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for frequency, percentage, mean, cross analysis, dispersion analysis, and recurrenc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owed that the subjects were women in their early 20s, majoring in domestic science and had been brought up in big cities. They were living with their parents and 2 siblings, and the academic

background and income of the parents were both above average. The family characteristics were as follows: democratic tendency of the parents, intimacy between the parents, marriage satisfaction of siblings, and personal satisfaction towards family life were all very high; most of the interviewed female students wanted to get a job after graduation.

Second, most interviewees showed positive responses towards marriage and said financial strength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considering a husband. 67.7% said that there is an adequate age to get married, and this age turned out to be 28.08. 89.0%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would like to get married, and the average age for marriage age was 28.76. The most popular reason for marriage was, 'to find a partner in life.' 'A responsibility to get married', or 'to become independent from parents' received negative responses. Reasons behind not wanting to get married were, 'for self-realization and personal development' and 'responsibilities and roles following marriage'. The female college students had positive attitudes towards marriage, its meaning, and marriage relationships. However, they had negative perspectives towards divorce, financial conditions, premarital cohabitation, premarital sexual intercourse, and late marriage.

Third, 53.4%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children are necessary, and 39.6% said that it was alright to not have children. The ideal number of children was 2.09, and the actual number of children that the respondents were planning to have was 1.81.

The reasons for not wanting to have children or wanting to have just one were: financial reasons, physical/psychological burden, difficulty in keeping a balance between the family and work, unfair sharing of

housework and bringing up children. This shows that family matters are important to these women, and that they think that there are many burdens associated with housework. When the students were asked about 2 or more children, they said it would be nice because the children would not be lonely, it would be joyful to bring them up, and it is better to have more. On the other hand, the negative reasons were social responsibilities, family succession, and economical support at old age. On low birthrates, 57.6% of respondents thought that the government should be the key player in solving the problem, and 77.2% wanted to keep their jobs after marriage. Regarding questions on governmental policies that might affect childbirth and the number of children each family has, most respondents said the most effective policy would be financial support and maternal leave.

Female college students were fully aware of the problems caused by low birthrates, and show positive responses towards social support, birth avoidance factors, parental values, educational values, and adoption. Concerning low birthrates, respondents thought that rises in costs related to raising children and education, lack of social support, economical stagnation and unemployment, increase in employed women, independent lifestyle and individualism were responsible factors, in order.

Fourth, as a result of the research analyzed the willingness to get married based on background, women, who majored in domestic science or humanities with mothers that had high educational backgrounds, who had close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and who were satisfied with their family life, showed more willingness towards getting married. Also, women, who majored in domestic science, who were closed with their

parents, who had siblings that were satisfied with their marriages, and who were satisfied with their family life, were more positive towards having children.

Fifth, women, who are old, who study domestic science, who had religion and lived with their parents, who had married siblings, and whose parents had close relationship between each other, were apt to show high marriage age goals. Moreover, the number of children were tend to be more when the women are older, the marriage age goals were set to be high to women who are majoring in domestic science, and those with fathers with low educational backgrounds had a tendency to plan to have many children.

Most female college students responded with lower numbers in the actual number of children they were planning to have than the number they thought ideal. This shows that women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raising and educating children, and this calls for a better social structure and facilities that can support child raising. Also, the society, as a whole, must be more willing to give women maternity leave. A continuous movement towards a new social consciousness must be implemented, and social education for a more positive perspective on marriage and childbirth must be carried out.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여대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에 대해 옳은 답이나 틀린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평소에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해 주신 자료는 본 연구를 위한 통계적인 자료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응답해 주신 자료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정확하고 솔직하게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 소비자학과
조윤정

▣ 다음 질문에 내용을 적어주시거나 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하여주십시오.

1. 귀하의 현재 몇 세입니까? 만 _____ 세
2.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_____ 전공
3.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없다 ⑤ 기타 _____
4. 귀하 가족원은 어떻게 됩니까?
 ① 부모님 ② 부모님+ 형제,자매 ③ 조부모님+ 부모님+ 형제,자매
 ④ 혼자 ⑤ 기타
5. 귀하의 주 성장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대도시 ② 중·소 도시 ③ 읍면 지역
6. 귀하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7. 귀하의 부모님의 직업을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써주십시오. 1) 부 _____ 2) 모 _____

① 고위 임직원, 관리자 및 전문가	입법공무원, 정부고위 공무원, 회사 최고경영자, 생산부서관리자, 물리학자, 천문학자, 수학자, 컴퓨터프로그래머, 건축가, 전기기술자, 의사, 약사, 간호사, 교수, 교사, 판사, 변호사 등
② 기술공 및 준전문가	각종 분야의 기술공, 컴퓨터조작원, 사진사, 임상병리사, 항해사, 품질검사원, 치과기공사 등
③ 사무 종사자	비서, 각종 사무원, 경리사원, 은행출납원 등
④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항공기승무원, 조리사, 보모, 이미용사, 장의사, 경찰관, 소방관, 도소매 판매종사자, 방문판매원, 노점 및 이동판매원
⑤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농부, 어부, 정원사, 원예사, 동물사육자, 동물조련사, 벌목원, 해녀 등
⑥ 기능원, 기능 근로자 및 장치, 기계조작가	각종 기능공, 약기조율사, 인쇄공, 재봉사, 구두수선공, 각종산업용기계 및 장치조작원, 운전기사, 철도기관사, 선원 등
⑦ 단순노무 종사자	행상, 미화원, 수위, 경비원, 단순노무자 등
⑧ 가정주부	
⑨ 무직	

8.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을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써주십시오. 1) 부 _____ 2) 모 _____

- ① 중졸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 졸업
-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졸업 이상

9. 귀하의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① 외동딸 (10으로 가세요)
- ② _____ 남 _____ 녀 중 _____ 짝

9-1. 형제분 중 결혼한 분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0으로 가세요)

9-2. 형제분의 결혼생활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0. 귀하의 부모님 중 이혼이나 별거 또는 재혼을 하신분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1. 귀하의 부모님의 성향은 다음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민주적인 편이다
- ② 민주적인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비민주적인 편이다
- ⑤ 매우 비민주적인 편이다

12. 귀하 부모님의 부부관계는 어떠하다고(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친밀하다
- ② 친밀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좋지 않은 편이다
- ⑤ 매우 나쁘다

13. 본인과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친밀하다
- ② 친밀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좋지 않은 편이다
- ⑤ 매우 나쁘다

14. 귀하의 전반적인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만족 한다
- ② 만족 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불만족 한다
- ⑤ 매우 불만족 한다

15. 귀하는 취업을 희망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다음은 결혼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을 읽고 가장 자신의 생각과 일치되는 사항에 V 표를 해주십시오.

16.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반드시 해야 한다
- ② 하는 편이 좋다
- ③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 ④ 하지 않는 편이 좋다
- ⑤ 잘 모르겠다

17. 귀하는 결혼에 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다면 이상적인 여성의 결혼 연령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있다 _____ 세 ② 없다

18. 귀하는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8-4로 가세요)

18-1. 귀하는 몇 세에 결혼 할 계획입니까? _____ 세

18-2. 귀하의 배우자 선택 시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2가지 선택)**

- ① 외모 등 신체적 조건 ② 경제력 ③ 학벌 ④ 종교
 ⑤ 신뢰와 사랑 ⑥ 성격 ⑦ 가정환경 ⑧ 기타 _____

18-3. 결혼을 할 생각이 있는 이유 중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해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2.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기 위해서					
3. 인생의 동반자를 원해서					
4.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5. 자녀를 갖고 싶어서					
6. 남들도 대부분 하니까					
7.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8. 기타 _____					

(질문18 ②번 선택자만)

18-4. 결혼을 할 생각이 없는 이유 중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해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경제적 이유로(결혼비용, 결혼생활 비용 등)					
2. 사회생활에 장애가 될 것 같아서					
3. 결혼생활이 자유롭지 못해서					
4.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을 위해서					
5. 결혼생활을 잘 해낼 자신이 없어서					
6. 결혼에 따른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7. 아직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 이므로					
8.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9. 기타 _____					

19. 귀하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다음의 견해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2) 결혼은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4)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도 결혼할 것이다.					
5) 결혼 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6)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7)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게 낫다.					
8)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이다.					

▣ 다음은 자녀출산 및 정부정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다음을 읽고 가장 자신의 생각과 일치되는 사항에 V표를 해주십시오.

20. 귀하의 자녀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 ① 자녀는 반드시 필요하다 ②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 ③ 아들은 꼭 필요하다
 ④ 딸은 꼭 필요하다 ⑤ 기타 _____

21. 귀하께서 결혼을 한다면 첫아이를 몇 살에 출산하려고 하십니까? _____ 세

22. 귀하는 한 가정의 이상적인 자녀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없어도 상관없다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이상

23. 귀하는 실제로 몇 명의 자녀를 갖고자 합니까?

- ① 없어도 상관없다 (23-1로 가세요) ② 1명 (23-1로 가세요)
 ③ 2명 ④ 3명 ⑤ 4명이상 → 23-2로 가세요

23-1. 귀하께서 자녀를 두지 않거나 1명을 두기 원하는 이유 중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해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					
2. 필요성을 못느껴서					
3.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울 것 같아서					
4.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5. 경제적 이유로(많은 양육비용 및 교육비용)					
6. 육체적, 정신적 부담때문에					
7.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					
8. 가정내에서 가사 및 양육이 남성과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지 않아서					
9. 기타 _____					

23-2. 귀하께서 자녀를 2명이상 갖기 원하는 이유 중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해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외동은 외로울까봐					
2. 자녀는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3. 자녀를 키우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4. 가계 계승을 위해서					
5.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6. 노후에 외로울까봐					
7. 노후에 경제적 부양때문에					

8. 기타 _____

24. 자녀양육의 책임은 주로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부부 공동
 ④ 가족구성원 중 어느 누구나 가능한사람 ⑤ 국가

25. 귀하는 결혼 후 여성의 직장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계속한다
 ② 가정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그만둔다
 ③ 무조건 그만둔다
 ④ 임신하면 그만둔다
 ⑤ 육아 후 다시 직장생활을 계속한다.
 ⑥ 기타 _____

26. 저출산 문제의 해결주체는 누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본인의 의지 ② 기업 ③ 정부 ④ 사회단체 ⑤ 기타 _____

27. 정부가 시행중인 출산정책(보육수당지급, 출산장려금 등)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효과적이다 ② 대체로 효과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효과적이지 않다 ⑤ 매우 효과적이지 않다

28. 다음 중 출산 또는 자녀수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부정책은 무엇입니까? (2가지 선택)

- ① 출산축하금 지급
- ② 불임치료 및 기형아 검진비등 지원
- ③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 ④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
- ⑤ 보육시설확충
- ⑥ 아파트 우선분양 등 주거지원 강화
- ⑦ 기타 _____

29. 다음 질문내용과 가장 자신의 생각과 일치되는 사항에 V표를 해주십시오.

질문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2) 여성의 자유로운 생활 및 미용건강 등 개인적인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가 출산기피에 영향을 미친다.					
3)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					
4)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5) 여건이 된다면 자녀는 많을수록 좋다.					
6)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들이는 시간을 직장이나 일 등 사회적 성공을 위해 쓰는 것이 더 낫다.					
7)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지원과 시설부족이 출산 기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8) 나는 어떤일을 해서라도 자녀를 끝까지 교육시키겠다.					
9) 저출산의 확대는 사회적으로 문제이다.					

30. 다음은 우리나라 출산을 저하의 원인입니다. 다음 내용이 출산을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신의 생각과 일치되는 사항에 V표를 해주십시오.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경기불황과 실업을 증가					
2) 취업여성의 증가					
3) 초혼연령의 상승 및 이혼부부의 증가					
4)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용의 상승					
5) 아동보육시설의 부족 등 사회지원 부족					
6) 과거보다 더 편하게 살기 원하는 의식확산					
7) 독립적인 생활과 개인적 성취를 중시하는 의식 확산					
8) 남아선호사상의 저하 등 자녀 가치관의 변화					